



■ 2008 고용영향분석·평가 연구시리즈 2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이규용 · 박성재 · 이인재 · 이창수」

2008 고용영향분석·평가 연구시리즈를 내면서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정책 연구사업인 고용영향평가사업 2차 연도(2008년)의 결과물이다. 고용영향평가사업은 각종 경제·산업정책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정책들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기조로 전환되고 게다가 성장의 일자리 창출력 자체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 및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으로부터 달성될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란 단기간에 높아지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거시·재정·산업·과학기술정책 등 각종 정책영역에서 정부가 보다 고용친화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유도·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각종 경제·산업정책의 고용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용영향평가의 제도화는 단순히 정책의 고용창출효과 제

고만이 아니라 고용·노동시장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해당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동안 거시·재정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들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얼마만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거시·미시분석모형,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분석·평가방법론의 개발·구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연구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고용영향 분석·평가는 어떤 정책이 고유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노동시장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성과를 미스매치 없이 적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08년도 고용영향평가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걸쳐 총 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1. 지역산업정책의 고용영향 분석·평가(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2.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연구책임: 이규용 연구위원)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평가(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4. 조세정책과 고용효과(연구책임: 남재량 연구위원)
5.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 이규용 연구위원)
6. 고용영향 분석·평가방법론 연구(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7.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 통계(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8. 고용정책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해외사례(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아무쪼록 본 연구시리즈에 수록된 2008년도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평가연구 결과가 향후 노동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성공과 국가고용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3. 연구의 기본방향	7
II.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추이	10
1.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10
2. 현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현황	16
III.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와 변동	22
1. 분석 방법 및 자료	22
2.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와 특징	25
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변동	38
4. 요약 및 시사점	44
IV. 외국인 투자의 고용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46
1. 문제제기	46
2. 이론적·실증적 분석틀	46
3. 자료 및 변수	51
4. 분석결과	53
5. 소결	58
V.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파급효과	5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9
2. FDI 고용영향의 경로	60
3. 분석방법	62

4. 정책실험 I: FDI 고용영향의 3가지 경로	67
5. FDI 증가의 고용영향 전망	77
6. 요약 및 시사점	83
참고문헌	85

표 목차

〈표 2-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1
〈표 2-2〉 투자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2
〈표 2-3〉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4
〈표 2-4〉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5
〈표 2-5〉 업종별 FDI 투자현황	17
〈표 2-6〉 제조업 세부업종별 FDI 투자현황	17
〈표 2-7〉 업종별 투자금액	18
〈표 2-8〉 업종별 평균 투자규모 분포	19
〈표 2-9〉 FDI 투자국별 주요 투자업종	20
〈표 3-1〉 업종별 고용보험DB와 연결된 사업장 비중	24
〈표 3-2〉 FDI 투자업체의 연도별 총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25
〈표 3-3〉 주요 업종별 기업체 및 총 고용인원 추이	26
〈표 3-4〉 사업장규모별 사업체 및 총 고용인원 추이(단위: 개소, 명) ..	27
〈표 3-5〉 투자규모별 사업체 및 총 고용인원 추이	28
〈표 3-6〉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2000~2006년간 근로자추이	29
〈표 3-7〉 FDI 투자업체의 연도별 고용구조	30
〈표 3-8〉 FDI 투자업체 중 2000~2007년 영업지속 사업체의 연도별 고용 구조	31
〈표 3-9〉 2007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구조	32
〈표 3-10〉 주요 업종별 FDI 투자업체의 2000, 2007년 고용구조	32
〈표 3-11〉 2000~2007년 영업 지속 사업장의 2000년 및 2007년 고용구조	33
〈표 3-12〉 외투기업의 연도별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34
〈표 3-13〉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의 연도별 이직자 추이	35
〈표 3-14〉 2007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의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36
〈표 3-15〉 외투기업 사업체특성별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38

〈표 3-16〉 사업체생성 및 사업체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수변동 추이	39
〈표 3-17〉 주요 업종별 사업체생성 및 사업체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수 변동	40
〈표 3-18〉 전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42
〈표 3-19〉 주요 업종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43
〈표 4-1〉 표본기초통계	52
〈표 4-2〉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52
〈표 4-3〉 회귀분석(Pooling OLS): 전체	54
〈표 4-4〉 단순 회귀분석(Pooling OLS): 대기업과 중소기업	54
〈표 4-5〉 단순 회귀분석(Pooling OLS):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55
〈표 4-6〉 패널분석: 전체	56
〈표 4-7〉 패널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	57
〈표 4-8〉 패널분석: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58
〈표 5-1〉 2003년 산업연관표의 고용 - 산출 구조	63
〈표 5-2〉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69
〈표 5-3〉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70
〈표 5-4〉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71
〈표 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72
〈표 5-6〉 자본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	74
〈표 5-7〉 자본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75
〈표 5-8〉 전자산업 1%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76
〈표 5-9〉 전자산업 1%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77
〈표 5-10〉 4대 산업 FDI 1% 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79
〈표 5-11〉 4대산업 FDI 1%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80
〈표 5-12〉 FDI 10%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82
〈표 5-13〉 FDI 10%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83

그림 목차

[그림 2-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2
[그림 2-2] 신규투자의 비중	13
[그림 4-1] 외국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산출량 변화	48
[그림 4-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1. 문제제기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투자를 유치한 현지에 자본형성효과, 생산성 증대효과, 고용효과, 무역촉진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미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FDI¹⁾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자유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규제가 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유인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

- 1)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 등을 총칭하는데,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²⁾로 구분된다. 외국인 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경영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이다(남광희·윤성훈, 200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FDI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외국인의 투자비율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 만 원 이상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주식 총수의 10%미만을 소유하지만 ①임원의 파견계약 체결 ②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④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자회사)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³⁾로 인정받는다.

한 일환으로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회하는 개방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조치(대외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감면 등의 차별적용 배제, 외국인투자자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제한 공고 등)를 취하였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 산업단지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8년 이후 외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절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형태별·업종별 구성도 큰 변동을 보였다. 1980년대 연평균 5.5억 불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은 1998년 89억 불로 급증하였고 1999년에는 155억 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 하였다. 1998~2007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총액(신고기준)은 1,162억 달러로 그 이전 10년간 유입액(199억 달러)의 5.8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형태별(그린필드형·M&A형), 업종별(제조업·서비스업)로 보면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액 대비 비중은 1998년 42.7%에서 2007년 76.4%로, 서비스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33.2%에서 74.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도 큰 변화를 보였다.²⁾ 2000년 들어 유입액이 감소하다가 2003년 이래 약 120억 불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4분기 FDI가 첫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연간목표치(120억 달러)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이 외국인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증진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형성효과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효과 및 선진 경영기법 파급에 따른 기술이전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무역을

2) 김영태 외(2008), '외국인 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Monthly Bulletin 4월호, 한국은행

촉진하는 무역효과와 새로운 자본이나 기술의 유입으로 기존 국내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쟁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이용한 분석과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여기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자본 형성효과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증진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자본형성효과는 투자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린필드 투자는 자본을 증가시켜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M&A 투자는 그 자체로 자본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국내자금이 있고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유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러한 투자위축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나. 생산성 효과

생산성 효과는 크게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효과와 기술이전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본심화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Borensztein

et al.(1995)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GDP 대비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효과는 각국의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광희, 유성훈(2005)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축적이 성숙기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형성 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기술이전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외국인 투자기업은 선진 경영기법을 모회사로부터 도입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기술 및 경영기법을 익힌 기술인력 및 경영자들이 다른 국내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이 창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내 산업에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확산시키게 된다. 물론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구개발을 주로 모기업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현지 국에서는 핵심적인 연구가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승진(1999)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국내 기업에 비하여 높으나 생산성 파급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산업 전반에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병기(2002)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효과가 높고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확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태훈(2003)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동일 산업 내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 고용효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새로운 공장설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

하거나 M&A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높은 생산성에 힘입어 고임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전도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FDI의 유입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로 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축 또는 확장에 의하거나 전후방 연관기업의 생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로 이는 M&A 등 이후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나 경쟁기업의 폐쇄 또는 생산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에서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G경제연구원(2006. 2)은 외국인 투자의 일자리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시산결과 동 기간 중 취업자 수 증가규모(256만 명)의 20%(52만 명)가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2004. 10)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실태조사에서 국내진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진출 당시보다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형태인 경우 136.7%, 기존 기업 인수 형태인 경우 17.2% 늘어나 그린필드형 신규투자형태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종인과 박장호(2007. 1)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2002년 370명에서 2005년 412명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M&A형 투자와 그린필드형 투자가 시차를 두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 가지 형태의 투자만 발생할 때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공장설립과 합병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공장설립(22.6%) 또는 합병(14.2%)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고용증가율(2002~2005년 중 34.3%)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2008. 5)은 1999~2007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115억 달러가 유입되어 약

15.5만 명의 취업을 유발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형태별로는 M&A형이 연평균 38억 달러 유입되어 8.8만 명의 고용을 감소시켰으나 그린필드형은 78억 달러 유입되어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67억 달러 유입되어 15.5만 명의 고용을 늘렸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된 IT 부문 등에서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그린필드형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제조업 등 실물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등 긍정적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M&A형과 그린필드형이 결합될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무역효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역을 촉진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은 대체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현지에서 획득한 이익을 모국에 송금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 국제수지 악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마. 경쟁효과

새로운 자본이나 기술의 유입으로 기존 국내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능력에 따라 경쟁상태가 강화될 수도 있고 혹은 반 경쟁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기업들이 모두 도산하여 해당 시장에 경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로 경쟁력이 뒤쳐진 국내기업들이 도태되고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외

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기업 간 경쟁압력 심화로 경제효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였다. 추정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성제고 효과는 수입이 0.11%p, 외국인 직접투자가 0.20%p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며 이는 경쟁효과가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nvest Korea(2005. 12)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성장성 면에서 더 양호하며 M&A형보다 그린필드 유형의 수익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6. 1a)에서도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M&A형 투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강상진과 손상학(2008)은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의한 음의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비재벌 기업의 경우 재벌기업의 경우와는 반대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재벌기업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비재벌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연구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FDI의 다양한 효과 중 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FDI의 유입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로 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축 또는 확장에 의하거나 전후방 연관기업의 생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로 이는 M&A 등 이후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나 경쟁기업의 폐쇄 또는 생산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자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G경제연구원, 2006; 정종인·박장호, 2007; 한국은행, 2008). LG경제연구원(2006)은 2000~2005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자(256만 명)의 20%(52만 명)가 외국인 직접투자자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2004)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진출 당시보다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형태인 경우 136.7%, 기존 기업 인수 형태인 경우 17.2% 늘어났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신규투자형태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종인·박장호(2007)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2002년 370명에서 2005년 412명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연구는 대부분 거시 자료 혹은 설문자료를 이용해 고용효과를 살펴보고 있어 과대 추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의 변동과 고용증감간의 비교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료의 문제로 제약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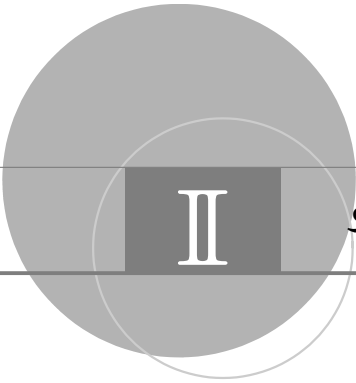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정보와 2000년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2007년까지의 고용보험 DB와 결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변동을 살펴본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 확보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정보에는 2008년 3월 시점의 투자지분과 금액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의 변동이나 투자시점에 관한 정보가 없다. 또한 신규투자인지 증액투자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 DB와 결합한 자료에는 2000년 이후의 고용변동을 파악하고 있지만 투자시점 및 투자금액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2000년 이후의 고용변동만 파악한다. 다만 2000년 이후의 신규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신규투자 기업의 고용효과는 파악이 가능하다.

둘째, 상장기업의 외국인지분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변화의 효과를 살펴본다. 상장기업 자료에는 다양한 경영정보를 포함하여 외국인지분에 관한 정보가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외국인 직접투자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자료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여부가 확인 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직접투자 시점 및 투자금액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생산성 효과와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다만 여기에서의 분석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라는 한계가 있다.

셋째, CGE 모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현황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현황 및 변동추이를 살펴본다. 제4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변화와 생산성 및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5장은 CGE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II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추이

1.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연도별 추이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을 총칭하는데 투자목적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한다. 외국인 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기업경영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따라서 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현지에 이전시켜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이다. 즉 FDI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형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의 목적이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식취득의 목적이 공개되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지분율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투자로서 그 미만은 간접투자로서 분류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FDI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임원의 파견계약의 체결,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포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

지식경제부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을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32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9년에 15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152억 달러의 높은 유입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의 직접투자금액은 연간기준으로 가장 많은 실적이며 평균금액 면에서 볼 때도 7.3백만 달러로 가장 높다. 2000년 들어와서는 투자건수는 연간 3,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나 투자 금액은 11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투자금액은 미세하나마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2-1).

〈표 2-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

연도	건수	금액		평균금액
95	877	1970.4		2,247
96	967	3203.6		3,313
97	1,056	6971.1		6,601
98	1,401	8858.0	(5,320)	6,323
99	2,104	15544.6	(1,101)	7,388
00	4,145	15256.0	(1,027)	3,681
01	3,342	11287.0	(1,129)	3,377
02	2,410	9094.6	(508)	3,774
03	2,569	6470.5	(511)	2,519
04	3,077	12795.6	(926)	4,158
05	3,669	11565.5	(960)	3,152
06	3,107	11242.4	(906)	3,618
07	3,559	10514.3		2,954
08,3/4	2,869	7421.0		2,587
누계('95~08,3/4)	35,152	132,195.0		3,761

주 : 신고기준이며 ()는 도착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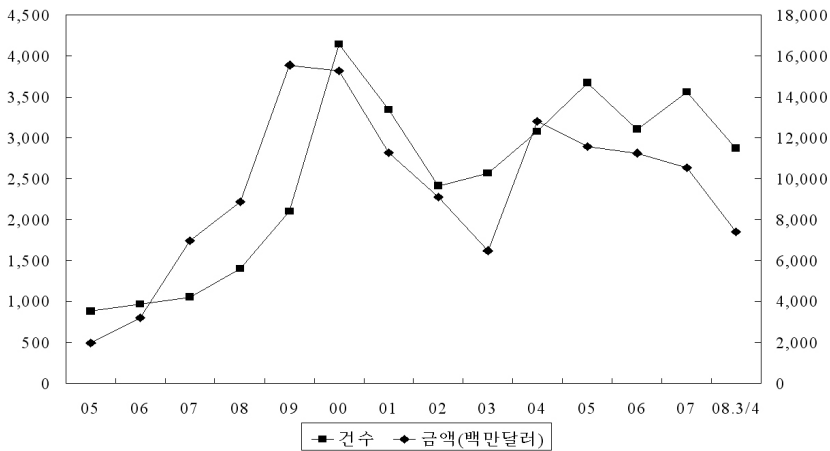
자료 :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 도착기준은 김영태 외(2008) p.49에서 인용

1) 남광희·윤성훈(2005),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3



[그림 2-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주 : 신고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나. 투자유형 및 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표 2-2〉와 [그림 2-2]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 장기차관 등 투자유형별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신규투자자는 제조업의 공장설립이나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신설형(Greenfield) 투자로 볼 수 있으며, 증액투자자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하는 M&A형 투자로 볼 수 있다.

표 및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투자건수에서 신규투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투자건수규모면에서 볼 때 증액투자의 약 2배 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액 면에서 볼 때 신규투자금액비중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즉, 신규투자금액비중은 2002년 62.4%를 기록 한 후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의 경우(3/4분기 누계 기준) 전체 투자금액 중 33.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평균 신규투자금액은 평균증액투자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 증액투자 규모는 평균신규투자 금액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에서 신규투자비

〈표 2-2〉 투자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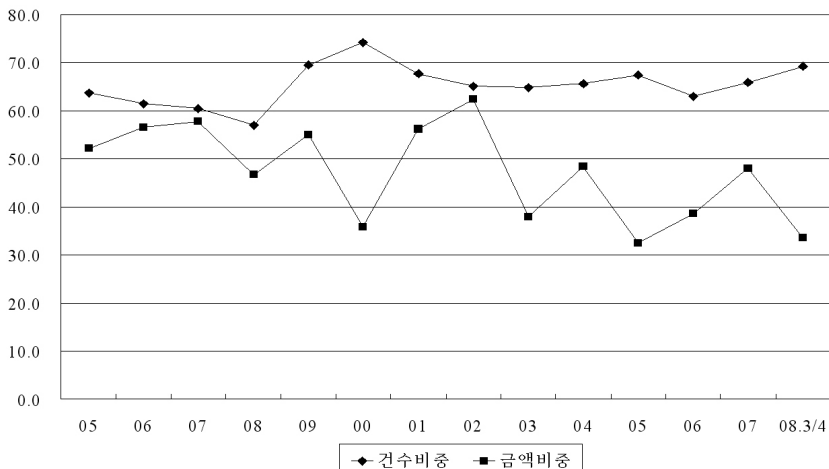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건수			금액			평균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신규투자	증액투자
05	559	318		1,028.4	942.0		1,840	2,962
06	595	372		1,812.7	1,390.9		3,047	3,739
07	638	399	19	4,021.2	2,886.3	63.7	6,303	7,234
08	798	545	58	4,133.8	3,635.4	1,088.8	5,180	6,671
09	1,462	614	28	8,553.0	6,354.2	637.4	5,850	10,349
00	3,077	1,041	27	5,463.1	9,439.2	353.8	1,775	9,067
01	2,263	1,045	34	6,346.3	4,331.0	609.7	2,804	4,145
02	1,570	825	15	5,678.2	3,220.9	195.6	3,617	3,904
03	1,665	882	22	2,455.1	3,935.7	79.8	1,475	4,462
04	2,018	999	60	6,200.8	5,555.6	1,039.1	3,073	5,561
05	2,476	1,170	23	3,758.0	7,715.5	92.0	1,518	6,594
06	1,958	1,103	46	4,340.5	6,510.5	391.4	2,217	5,903
07	2,343	1,154	62	5,054.2	4,919.4	540.8	2,157	4,263
08.3/4	1,988	819	62	2,485.7	4,303.8	631.4	1,250	5,255
전체	23,410	11,286	456	61,331.0	65,140.6	5,723.4	2,620	5,772

주 : 신고기준

자료 :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그림 2-2] 신규투자의 비중



주 : 신고기준

자료 :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중이 감소하고 증액투자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의 확보, 잠재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경간 M&A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M&A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국내 FDI에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²⁾

〈표 2-3〉은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볼 때 1백만 불 미만의 상대적 소액 투자건수나 비중은 2000년 이후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1백만 불~1천만 불 규모와 1천만 불~1억 불 규모의 경우에는 투자건수와 투자규모면에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1억 불 이상의 고액 투자의 경우 2001년 이후 투자건수나 금액 면에서 감소추세이다. 즉 투자건수 면에서 보면 1억 불 이상 고액투자는 2001년 24건에서 2005년에는 20건으로 2007

〈표 2-3〉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

구분	1백만 불 미만		1백만 불 ~1천만 불		1천만 불 ~1억 불		1억 불 이상		누계(1995 ~2008.3/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9,229	4,257	4,495	15,692	1,428	41,839	254	70,407	35,152	132,195
1995년	659	166	188	601	47	1,204			877	1,970
1996년	729	179	188	595	55	1,451	6	978	967	3,204
1997년	777	178	211	775	66	1,559	14	4,459	1,056	6,971
1998년	1,046	194	247	964	102	2,965	18	4,736	1,401	8,858
1999년	1,651	252	305	1,176	136	4,362	41	9,755	2,104	15,545
2000년	3,608	483	417	1,536	125	4,022	29	9,215	4,145	15,256
2001년	2,903	384	336	1,104	95	3,225	24	6,574	3,342	11,287
2002년	2,047	276	289	971	70	2,054	23	5,794	2,410	9,095
2003년	2,235	307	264	910	75	2,356	10	2,898	2,569	6,471
2004년	2,548	345	403	1,505	125	3,616	22	7,330	3,077	12,796
2005년	3,106	413	442	1,451	122	3,705	20	5,996	3,669	11,566
2006년	2,509	363	459	1,516	135	3,678	19	5,685	3,107	11,242
2007년	2,966	407	445	1,543	151	4,343	13	4,222	3,559	10,514
2008. 3/4	2,445	309	301	1,046	124	3,299	15	2,766,898	2,869	7,421

주 : 신고기준

자료 :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 남광희·윤성훈(2005), 같은 책, p.10

년에는 13건에 그쳐 투자건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억 불이상의 고액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도 2004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표 2-3〉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건수 면에서 볼 때 특징적인 점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 투자건수의 감소

〈표 2-4〉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

연도 업종	1995		2000		2005		2007		2008.3/4		누계(1995 ~2008.3/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877	1,970	4,145	15,256	3,669	11,566	3,559	10,514	2,869	7,421	35,152	132,195
농림어업 및 광업	3	2	14	4	10	3	11	3	14	1	149	367
제조업	450	1,041	832	6,877	748	3,078	684	2,692	439	2,239	8,855	51,725
전기·가스·수도업	0	0	9	207	8	91	14	146	14	45	119	3,306
건설업	16	64	31	48	46	92	48	61	32	164	446	2,711
도소매업	285	349	2,181	2,024	1,937	807	1,753	1,827	1,583	807	16,639	17,393
음식숙박업	18	93	97	469	108	307	145	422	141	33	1,111	5,530
운수·창고업	21	8	62	280	75	364	105	564	84	672	848	3,786
통신업	2	2	59	191	18	638	22	37	7	11	251	2,098
금융·보험업	27	312	153	1,925	151	3,920	151	2,293	134	2,386	1,591	25,201
부동산임대업	2	1	55	950	90	959	122	977	90	339	756	5,612
사업서비스업	45	89	568	779	355	964	372	1,107	243	528	3,378	6,334
문화·오락서비스업	2	3	42	1,238	63	309	80	366	36	128	480	7,325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6	7	42	263	60	34	52	19	52	67	529	8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및 광업	0.3	0.1	0.3	0.0	0.3	0.0	0.3	0.0	0.5	0.0	0.4	0.3
제조업	51.3	52.9	20.1	45.1	20.4	26.6	19.2	25.6	15.3	30.2	25.2	39.1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2	1.4	0.2	0.8	0.4	1.4	0.5	0.6	0.3	2.5
건설업	1.8	3.2	0.7	0.3	1.3	0.8	1.3	0.6	1.1	2.2	1.3	2.1
도소매업	32.5	17.7	52.6	13.3	52.8	7.0	49.3	17.4	55.2	10.9	47.3	13.2
음식숙박업	2.1	4.7	2.3	3.1	2.9	2.7	4.1	4.0	4.9	0.4	3.2	4.2
운수·창고업	2.4	0.4	1.5	1.8	2.0	3.1	3.0	5.4	2.9	9.1	2.4	2.9
통신업	0.2	0.1	1.4	1.3	0.5	5.5	0.6	0.3	0.2	0.2	0.7	1.6
금융·보험업	3.1	15.8	3.7	12.6	4.1	33.9	4.2	21.8	4.7	32.1	4.5	19.1
부동산임대업	0.2	0.0	1.3	6.2	2.5	8.3	3.4	9.3	3.1	4.6	2.2	4.2
사업서비스업	5.1	4.5	13.7	5.1	9.7	8.3	10.5	10.5	8.5	7.1	9.6	4.8
문화·오락서비스업	0.2	0.2	1.0	8.1	1.7	2.7	2.2	3.5	1.3	1.7	1.4	5.5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0.7	0.3	1.0	1.7	1.6	0.3	1.5	0.2	1.8	0.9	1.5	0.6

주 : 신고기준

자료 :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자료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이다. 1995년 제조업 투자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3%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8년 3/4분기에는 1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의 투자건수의 비중은 1995년에는 32.5%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액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비록 투자건수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금액감소 비중은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비록 투자건수 비중은 높아졌으나 투자금액 비중은 오히려 1995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점은 금융보험업의 투자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 금융보험업의 1995년 투자금액 비중은 15.8%였으나 2005년에 33.9%로 증가하였고, 2008년 3/4분기에 32.1%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건수는 적으나 투자금액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이들 기관의 해외매각이 활발한데 기인한다.

2. 현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현황

가.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

앞에서는 1995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분석은 투자유입을 유량(inflow)으로 살펴본 것으로 투자횡수(outflow)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stock)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여기서는 현 시점(2008년 3월 기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노동부를 통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말 현재 FDI업체는 총 13,294개이다. 업종별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7,030개 업체로 전체 투자업체의 52.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22.1%), 사업서비스업(10.0%) 순이다. 이들 3개 업종이 전체 투자건수의 85.0%를 차지하며, 나머지 업종은 그 비중이 높지 않다(표 2-5참조).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FDI직접투

〈표 2-5〉 업종별 FDI 투자현황

(단위 : 개소, %)

업종	업체 수	%	업종	업체 수	%
농업 및 임업	29	0.2	통신업	52	0.4
어업	4	0.0	금융·보험업	397	3.0
광업	11	0.1	부동산임대업	221	1.7
제조업	2,937	22.1	사업서비스업	1,330	10.0
전기가스·수도 사업	27	0.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	0.0
건설업	105	0.8	교육 서비스업	74	0.6
도소매업	7,030	52.9	보건·사회복지사업	18	0.1
숙박·음식점업	482	3.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14	0.9
운수업	348	2.6	기타공공수리/개인 서비스업	114	0.9
			전체	13,294	100.0

자료: 지식경제부, 외투기업현황(2008년 3월 말 현재)

자 업체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이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17.6%), 인천(6.3%)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업체의 90.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총 투자건수는 2,937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22.1%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제조업(17.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6.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15.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9.7%) 등 중공업에의 투자비중이 높다(표 2-6 참조).

〈표 2-6〉 제조업 세부업종별 FDI 투자현황

(단위: 개소, %)

	업체 수	%		업체 수	%
기계 및 장비제조업	252	17.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	2.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3	16.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9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4	15.3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2	9.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76	5.2	섬유제품제조업	22	1.5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72	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1.2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4	4.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6	3.8	코르크,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5	1.0
음식료품 제조업	51	3.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2	0.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45	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	0.3
1차 금속산업	42	2.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	0.2
			소계	1,460	100

자료 : 지식경제부, 외투기업현황(2008년 3월 말 현재)



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2008년 3월 말 현재 전체 FDI 총 투자액은 714억 달러이며, 이를 업종별로 비교하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42.4%인 303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융보험업(25.0%), 도소매업(8.2%)순이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537만 달러이고 금융보험업, 통신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은 평균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제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1,031만 달러이고 상대적으로 투자건수가 많은 도소매업은 83.7만 달러에 불과하다.

〈표 2-7〉 업종별 투자금액

(단위: 건, 만 달러, %)

	투자건수		평균투자금액		전체 투자금액		평균현존비율(%)
	건	%	평균	%	총액	%	
농업 및 임업	29	0.2	286.3	53.3	8,302.5	0.1	79.5
어업	4	0.0	13.6	2.5	54.3	0.0	85.0
광업	11	0.1	131.5	24.5	1,446.3	0.0	72.7
제조업	2,937	22.1	1,031.6	192.0	3,029,904.3	42.4	60.2
전기가스·수도 사업	27	0.2	2,374.3	441.8	64,106.5	0.9	73.2
건설업	105	0.8	598.1	111.3	62,798.0	0.9	61.0
도소매업	7,030	52.9	83.7	15.6	588,296.2	8.2	92.9
숙박·음식점업	482	3.6	887.1	165.1	427,580.6	6.0	82.8
운수업	348	2.6	812.5	151.2	282,734.9	4.0	70.1
통신업	52	0.4	2,885.2	536.8	150,031.9	2.1	67.8
금융·보험업	397	3.0	4,499.8	837.3	1,786,405.8	25.0	76.7
부동산임대업	221	1.7	886.3	164.9	195,883.1	2.7	81.2
사업서비스업	1,330	10.0	310.6	57.8	413,107.6	5.8	71.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	0.0	9.4	1.7	9.4	0.0	50.0
교육 서비스업	74	0.6	43.7	8.1	3,235.6	0.0	77.4
보건·사회복지사업	18	0.1	60.6	11.3	1,090.3	0.0	84.8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14	0.9	897.5	167.0	102,315.8	1.4	64.3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14	0.9	241.1	44.9	27,487.8	0.4	81.6
전 체	13,294	100.0	537.4	100.0	7,144,790.8	100.0	81.1

자료 : 지식경제부, 외투기업현황(2008년 3월 말 현재)

투자금액규모별로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그리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은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금융보험업은 1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모직접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업종특성상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표 2-8〉 업종별 평균 투자규모 분포

업 종	투자금액 규모(\$)					전체
	5만 미만	5~10만	10~20만	20~100만	100만 이상	
농업 및 임업	13.8	34.5	20.7	13.8	17.2	29
어업	0.0	50.0	25.0	25.0	0.0	4
광업	0.0	36.4	27.3	9.1	27.3	11
제조업	8.9	14.9	10.4	23.7	42.1	2,937
전기가스·수도 사업	3.7	3.7	3.7	22.2	66.7	27
건설업	13.3	28.6	13.3	17.1	27.6	105
도소매업	28.1	45.8	11.4	8.7	6.0	7,030
숙박·음식점업	25.7	43.4	12.0	8.5	10.4	482
운수업	8.3	17.5	18.4	31.6	24.1	348
통신업	9.6	1.9	13.5	28.8	46.2	52
금융·보험업	8.6	9.3	4.3	16.9	61.0	397
부동산임대업	8.6	17.2	9.0	20.4	44.8	221
사업서비스업	17.6	22.5	11.6	24.7	23.6	1,33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0.0	100.0	0.0	0.0	0.0	1
교육 서비스업	16.2	40.5	12.2	23.0	8.1	74
보건·사회복지사업	44.4	38.9	5.6	5.6	5.6	18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9.6	23.7	9.6	24.6	32.5	114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24.6	35.1	14.9	7.0	18.4	114
전체	20.7	33.5	11.2	15.1	19.5	13,294

자료 : 지식경제부, 외투기업현황(2008년 3월 말 현재)

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적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국가는 모두 120여 국가로 투자건수로 보면 중국이 2,569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19.3%를 차지하고 이어서 일본(18.6%), 미국(14.4%), 파키스탄(6.6%), 나이지리아(4.0%)순이다. 그러나 국가별 투자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129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18.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본(17.5%), 네덜란드(13.0%), 영국(10.0%), 독일(6.1%), 프랑스(5.5%), 싱가포르(4.9%), 말레이시아(3.5%)순으로 나타나 있다. 투자건수가

많았던 중국이나 파키스탄은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 0.1%에 불과해 비교적 소규모 투자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 투자업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투자건수가 100건을 상회하는 국가만 대상으로 주요 투자 업종을 비교하면 <표 2-9>와 같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 투자건수가 비교적 높지만,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투자비율이 매우 높다. 즉, 일본과 독일은 전체 투자건수에서 제조업 투자비율이 40%를 상회하고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30%대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인 중국이나 파키스탄, 인도 등은 도

<표 2-9> FDI 투자국별 주요 투자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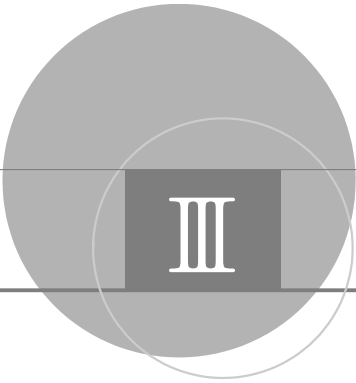
(단위: %, 건)

투자국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전체
중국	5.5	81.7	5.9	1.7	0.2	0.3	1.7	3.0	2,569
일본	44.2	27.4	3.2	2.4	2.9	1.4	12.8	5.7	2,475
미국	32.3	25.5	2.5	1.6	5.5	3.3	22.2	7.1	1,914
파키스탄	1.3	97.4	0.9	0.1	0.1	0.0	0.0	0.2	876
나이지리아	0.4	98.9	0.4	0.2	0.0	0.0	0.0	0.1	534
독일	43.3	36.9	1.6	2.7	2.9	1.6	7.8	3.2	374
몽골	1.2	74.1	20.7	1.7	0.3	0.6	0.0	1.4	347
네덜란드	26.9	32.0	1.2	4.5	4.2	5.4	21.1	4.7	331
싱가포르	21.7	27.8	0.7	13.2	7.8	6.8	17.3	4.7	295
홍콩	25.0	32.4	1.6	12.5	6.3	1.6	15.6	5.0	256
영국	28.0	20.6	1.2	2.1	12.8	4.1	23.0	8.2	243
인도	3.6	89.3	4.0	0.4	0.0	0.4	1.3	1.0	225
네팔	1.6	89.0	7.3	1.0	0.0	0.0	0.5	0.6	191
방글라데시	3.4	93.2	2.8	0.0	0.0	0.0	0.0	0.6	176
프랑스	33.7	33.1	2.3	4.6	5.1	0.0	14.9	6.3	175
러시아	7.6	76.6	2.5	7.0	0.0	1.3	2.5	2.5	158
캐나다	29.6	23.7	6.6	1.3	3.3	1.3	19.7	14.5	152
말레이시아	32.4	12.2	2.0	0.7	18.9	7.4	17.6	8.8	148
버진아일랜드	32.4	20.4	2.1	4.9	10.6	2.8	20.4	6.4	142
대만	35.8	45.3	0.7	3.6	0.7	0.0	11.7	2.2	137
스위스	33.1	42.6	0.0	8.1	3.7	0.7	8.8	3.0	136
호주	19.8	29.7	7.9	5.0	4.0	6.9	18.8	7.9	101
전체	22.1	52.9	3.6	2.6	3.0	1.7	10.0	4.1	13,294

자료 : 지식경제부, 외투기업현황(2008년 3월 말 현재)

소매업 투자비율이 80~90%로 투자가 특정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금융보험업 투자비율이 높은 국가는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가 18.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영국(12.4%), 싱가포르(7.8%), 홍콩(6.3%)순으로 나타나 있다. 선진국들은 투자업종이 비교적 다양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II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와 변동

1. 분석 방법 및 자료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와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투자시점과 투자 목적(단순 주식매입, 공장설립 혹은 M&A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정보에는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FDI 전후의 고용변화나 FDI기업의 고용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곤란하다. 둘째, 연도별 FDI기업에 대한 스톡정보 및 해당 연도별 FDI기업의 고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매년 신규로 유입한 FDI기업과 기존의 FDI기업 중 생존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본 연구를 위해 확보한 자료는 2008년 3월 말 시점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stock)에 관한 정보만 담고 있고 게다가 이 정보에는 고용관련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자료상의 제약 하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특징 및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2008년 3월 말 현재 시점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정보와 고용보험 DB(2000년 이후의 기간)와 결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이지만, 개별 사업체의 고용변동 및 사업체별 고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자의 결합을 통해 고용보험 DB에 있는

사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식별하여 고용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08년 3월 말 시점에서 생존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대상기간 내에 생존했으나 소멸한 투자기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일자리 변동과 관련하여 FDI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정보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FDI에 따른 두 고용효과, 즉 신규투자에 의한 고용효과와 투자의 증액(M&A)에 따른 고용효과의 직접적인 분석은 곤란하다. 이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및 증액 시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FDI 전후의 고용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시점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여야 가능하며 이는 추후의 작업으로 돌린다.

고용보험 DB와의 결합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보험사업장DB와 외투기업현황자료를 사업체 단위로 연결하였다. 2개 데이터를 연결한 결과 고용보험사업장DB에서 확인된 FDI투자업체는 모두 7,576개 기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57.0%에 해당된다. 기업체가 누락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어서 고용보험원부 및 이력DB에서 해당 사업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피보험자를 모두 추출하여 FDI투자업체 고용 근로자DB를 구성한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외투기업 고용구조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으로 한정된 결과 고용보험원부 및 이력DB에서 피보험자 정보가 1건 이상 추출된 사업체는 6,895개(51.9%)에 그쳤다. 681개 업체가 감소한 것은 ① 2000년 이전에 폐업된 사업체이거나 ② 고용보험 적용시점(사업장성립일)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체 그리고 ③ 2000년부터 2008년간에 해당 사업체가 존속했지만 피보험자가 한명도 존재하는 않은 사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¹⁾ 해당 사업

1) FDI투자업체 고용구조 분석시점을 2000년으로 설정한 것은 고용보험이 1998년 10월 1일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지만, 고용보험DB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전후이기 때문이다.



체의 고용구조는 FDI 투자업체 사업체별 근로자DB에서 성, 연령, 학력, 직종, 근속비중을 변수화하여 다시 기업체단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1〉은 전체 FDI기업과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구조 분석에 활용된 기업들의 산업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DI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 분석 표본에 포함된 사업체는 30~31%에 불과하며, 농업 및 임업(34.5%)과 전기·가스·수도 사업(44.4%)도 연결된 비율이 낮다. 업체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개인사

〈표 3-1〉 업종별 고용보험DB와 연결된 사업장 비중

(단위: 개소, %)

		외투기업		분석표본		비율
		개소	%	개소	%	
업종	농업 및 임업	29	0.2	10	0.1	34.5
	어업	4	0.0	2	0.0	50.0
	광업	11	0.1	8	0.1	72.7
	제조업	2,937	22.1	2,529	36.7	86.1
	전기가스·수도 사업	27	0.2	12	0.2	44.4
	건설업	105	0.8	88	1.3	83.8
	도소매업	7,030	52.9	2,133	30.9	30.3
	숙박·음식점업	482	3.6	152	2.2	31.5
	운수업	348	2.6	281	4.1	80.7
	통신업	52	0.4	46	0.7	88.5
	금융·보험업	397	3.0	228	3.3	57.4
	부동산임대업	221	1.7	116	1.7	52.5
	사업서비스업	1,330	10.0	1,080	15.7	81.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	0.0	1	0.0	100.0
	교육 서비스업	74	0.6	53	0.8	71.6
	보건·사회복지사업	18	0.1	10	0.1	55.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14	0.9	77	1.1	67.5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14	0.9	69	1.0	60.5
업체 유형	개인사업자	4,417	33.2	249	3.6	5.6
	공공기관	2	0.0	1	0.0	50.0
	일반기업	8,875	66.8	6,645	96.4	74.9
전 체		13,294	100.0	6,895	100.0	51.9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DB에서 식별된 사업체가 5.6%에 불과한데 이는 고용보험DB와 연결된 비율이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농업 및 임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3개 업종의 개인사업자 비율은 음식숙박업 63.1%, 도소매업 54.4%, 농업 및 임업 44.8%이다.

2.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구조와 특징

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추이

〈표 3-2〉는 2000년 이후 FDI기업의 총고용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FDI기업체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3,345개에서 2007년에는 6,069개로 FDI기업이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FDI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총 고용인원수는 2000년 56.1만 명에서 2003년에 60.8만 명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72.6만 명으로 증가하여 2000~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7%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²⁾ FDI기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낮은 것은 신규 투자 기업이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FDI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을 보면 2007년 167.9명에서 2003년에 133.8명으로 감

〈표 3-2〉 FDI 투자업체의 연도별 총고용 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단위: 개소, 명)

	FDI투자업체 전체		
	사업체 수	총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2000	3,345	561,671	167.9
2001	3,742	575,034	153.7
2002	4,103	608,306	148.3
2003	4,549	608,735	133.8
2004	5,058	627,845	124.1
2005	5,504	664,975	120.8
2006	5,855	691,417	118.1
2007	6,069	725,800	119.6
연평균증가율	8.9	3.7	-4.7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 2) 고용보험은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고용보험D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체단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의 경우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수 및 근로자수가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소하였고, 2007년에는 119.6만 명으로 줄어들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3-3〉은 2000~2007년 기간 동안 업종별 FDI기업체 수 및 고용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보면 규모면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 증가율을 보면 도소매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보험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고용변동을 보면 가장 많은 FDI기업이 진출해 있는 도소매업이 1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7.0%), 숙박 및 음식점업(5.1%)의 순이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분석대상기간동안 고용증가율이 1.5%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소매업만 기업체증가율에 비해 총고용 인원 증가율이 높으며, 제조업의 경우 기업체증가율은 5.9%이지만 총 고용인원증가율은 2.1%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FDI기업체 및 고용변화추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즉 5인 미만 기업체 수는 2000년 499개에서 2007년에

〈표 3-3〉 주요 업종별 기업체 및 총고용 인원 추이

(단위: 개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성장률
사 업 체	제조업	1,572	1,685	1,807	1,919	2,063	2,193	2,298	2,342	5.9
	도소매업	792	916	1,038	1,233	1,446	1,608	1,720	1,804	12.5
	숙박·음식점업	56	63	66	75	91	103	110	110	10.1
	금융·보험업	100	121	146	156	166	180	191	211	11.3
	사업서비스업	505	572	625	690	771	839	908	940	9.3
	기타업종	320	385	421	476	521	581	628	662	10.9
	전산업	3,345	3,742	4,103	4,549	5,058	5,504	5,855	6,069	8.9
총 고 용 인 원	제조업	277,414	279,948	294,433	289,466	298,769	314,504	324,036	321,035	2.1
	도소매업	42,008	51,871	62,596	68,385	73,508	81,852	91,912	100,743	13.3
	숙박·음식점업	21,679	23,414	28,279	28,967	30,313	30,273	29,688	30,717	5.1
	금융·보험업	72,512	74,374	75,487	72,761	72,587	69,447	71,893	80,735	1.5
	사업서비스업	50,024	50,265	53,921	55,142	60,952	71,704	75,205	80,079	7.0
	기타업종	98,034	95,162	93,590	94,014	91,716	97,195	98,683	112,491	2.0
	전산업	561,671	575,034	608,306	608,735	627,845	664,975	691,417	725,800	3.7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1,356개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5.4%이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DB에 누락되었거나 혹은 소멸된 기업도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추론되는바 소규모 기업의 변화가 가장 크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000년 92개에서 2002년과 2003년에는 오히려 91개로 줄어들었으며 2006년에 97개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다시 10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기업체규모별 FDI기업 현황을 보면, 10-29인 기업이 1,4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인 미만(1,356개), 30-99인 규모(1,322대)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FDI기업의 고용인원수를 보면 증가율에서는 소규모기업일수록 높다. 즉 5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000년 1,325명에서 2007년에는 6,069명으로 연평균 14.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5-9인 규모도 같은 기간에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00년 종업원 수가 306,679명에서 2007년 353,630명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기업체 수 증가율 1.8%에 비해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표 3-4참조).

〈표 3-4〉 사업장규모별 사업체 및 총고용 인원 추이

(단위: 개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성장률
사업체	5인 미만	499	572	662	891	1,117	1,217	1,314	1,356	15.4
	5~9인	450	521	559	613	684	785	812	874	9.9
	10~29인	826	932	1,026	1,093	1,179	1,281	1,403	1,426	8.1
	30~99인	820	917	994	1,063	1,120	1,224	1,288	1,322	7.1
	100~299인	446	491	542	558	609	636	655	713	6.9
	300~999인	212	218	228	240	256	268	286	274	3.7
	1000인 이상	92	91	92	91	93	93	97	104	1.8
	전 체	3,345	3,742	4,103	4,549	5,058	5,504	5,855	6,069	8.9
총 고용 인원	5인 미만	1,235	1,403	1,588	2,057	2,623	2,804	2,984	3,087	14.0
	5~9인	3,046	3,545	3,812	4,140	4,632	5,317	5,506	5,924	10.0
	10~29인	14,668	16,621	18,080	19,296	20,776	22,605	24,786	24,853	7.8
	30~99인	46,768	51,996	55,806	59,484	62,504	68,485	73,577	74,609	6.9
	100~299인	80,227	86,675	95,798	97,002	104,071	110,486	112,463	121,610	6.1
	300~999인	109,648	108,510	115,422	121,537	128,741	139,121	147,422	142,087	3.8
	1000인 이상	306,079	306,284	317,800	305,219	304,498	316,157	324,679	353,630	2.1
	전 체	561,671	575,034	608,306	608,735	627,845	664,975	691,417	725,800	3.7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투자규모별로 보면 5~10만 달러 규모에서 기업체 수와 종업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증가율도 5.1%로 나타났고, 이 규모의 종업원 수 증가율도 2000~2007년 기간 동안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규모가 종업원규모와 비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겠다(표 3-5).

〈표 3-5〉 투자규모별 사업체 및 총고용 인원 추이

(단위: 개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성장률
사 업 체	5만\$ 미만	284	376	450	561	688	747	724	673	13.1
	5~10만\$	361	412	473	548	650	762	901	1,013	15.9
	10~20만\$	324	369	408	453	530	585	646	680	11.2
	20~100만\$	863	972	1,063	1,192	1,309	1,435	1,526	1,564	8.9
	100만\$ 이상	1,513	1,613	1,709	1,795	1,881	1,975	2,058	2,139	5.1
	전 체	3,345	3,742	4,103	4,549	5,058	5,504	5,855	6,069	8.9
총 고 용 인 원	5만\$미만	10,329	10,963	12,241	12,735	13,638	14,454	15,526	13,801	4.2
	5~10만\$	14,120	15,084	16,223	17,343	19,175	21,201	22,940	24,835	8.4
	10~20만\$	9,946	9,931	11,276	11,828	12,695	14,070	15,332	16,232	7.2
	20~100만\$	62,408	67,690	72,792	75,029	81,675	86,969	90,577	92,656	5.8
	100만\$ 이상	464,868	471,366	495,774	491,800	500,662	528,281	547,042	578,276	3.2
	전 체	561,671	575,034	608,306	608,735	627,845	664,975	691,417	725,800	3.7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끝으로 FDI기업의 고용변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자.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FDI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FDI기업과의 비교를 수행해야 되겠지만 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적절한 계량모형이 필요한 만큼 여기서는 대략적인 추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자. 〈표 3-6〉은 사업체 기초통계에서 임금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06년의 고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사업체 기초통계에 나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

산업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FDI 투자업체의 연평균 증가율 3.7%에 비해 1.2%p 낮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기초통계에 나타난 업종별 고용증가율을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높았고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고용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앞의 <표 3-3>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로 이들 업종에 분포되어 있고 또한 이들 업종에서 고용증가율이 사업체 기초통계에 비해 높음을 볼 때 FDI기업의 고용성고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3-6참조>.

<표 3-6>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2000~2006년간 근로자추이 (단위: 명, 개소, %)

	2000		2006		연평균증가율	
	사업체	근로자 수	사업체	근로자 수	사업체	근로자 수
제조업	195,973	3,160,858	212,249	3,249,042	1.34	0.46
도소매업	289,807	1,552,818	305,156	1,617,349	0.86	0.68
숙박·음식점업	255,443	1,003,527	265,022	1,104,142	0.62	1.61
금융·보험업	31,423	607,682	31,910	613,416	0.26	0.16
기타 업종	501,223	4,807,716	597,871	6,325,880	2.98	4.68
전 체	1,273,869	11,132,601	1,412,208	12,909,829	1.73	2.5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원자료, 2000, 2006년

나. 인적특성별 고용구조

앞에서는 FDI기업의 전반적인 고용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FDI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인적특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표 3-7>에서 보듯이 연도별 인적특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전체 고용인원 중 남성 비율이 69.7%에 이르렀으나 2007년에는 65.7%로 소폭 하락하여 여성 취업자 비율이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주력 생산계층인 20~40대 비율이 2000년 92.0%에서 2007년 91.5%로 큰 변화가 없다.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자가 2000년 50.7%에서 2007년 60.2%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직종구조변화를 보면 2000년에는 (준)전문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16.2%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33.6%에 달해 관리직과 (준)전문가 비중이 2배가량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은 동 기간 동안 34.2%에서 22.9%로 11.3%p가 감소하였다. 근속기간의 변화를 보면 2000년에는 3년 미만 근속자가 32.0%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50.3%로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신설기업체의 증가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비정규비중의 증가 및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³⁾

〈표 3-7〉 FDI 투자업체의 연도별 고용구조

(단위: %, 세, 월)

연도	남자	20~40세	평균연령	전문대졸이상	직종				평균근속	근속	
					관리/전문가	사무직	기능직	단순노무		3년미만	10년이상
2000	69.7	92.0	33.6	50.7	16.2	49.7	22.9	11.3	100.1	32.0	34.2
2001	69.5	92.1	33.9	51.5	15.7	51.8	22.1	10.4	97.6	31.9	32.0
2002	68.3	91.2	33.9	52.6	15.1	53.6	21.3	10.0	91.2	33.1	27.9
2003	67.6	90.4	34.1	54.3	14.9	54.7	20.8	9.6	88.1	32.2	25.7
2004	66.9	91.5	34.3	56.3	14.6	56.3	20.3	8.8	84.7	31.4	23.8
2005	66.9	88.1	34.4	57.6	14.7	56.7	20.0	8.6	78.2	35.3	21.0
2006	66.3	86.7	34.6	59.8	25.7	48.5	20.4	5.4	72.1	42.8	18.7
2007	65.7	91.5	34.7	60.2	33.6	43.5	19.5	3.4	64.9	50.3	16.7

주 : 기능직은 농업업종원자, 기능원, 조립원을 의미함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표 3-7〉은 FDI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적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기업의 유입에 따른 효과가 감안되어 있다. 이제 FDI기업에 나타난 인적특성 및 변화추이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 3-8〉은 FDI기업 중 2001년 이후 신규업체의 유입을 통제하여 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영입이 지속된 기업체 2,990개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인적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인 추이는 전체 FDI투자업체 고용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직종의 경우 (준)전문가 이상 직종의 비율 증가가 다소 낮고 생산직이 비중은 소폭 높다. 근속연수를 보면 3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의 경우 FDI기업 전체와 비교시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다소

3) 동 자료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000년 16.4%에서 2007년 20.1%로 나타나 있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중 규모 그 자체는 FDI기업 전체에 비해 약간 높다.

〈표 3-8〉 FDI 투자업체 중 2000~2007년 영업지속 사업체의 연도별 고용구조 (단위: 명, %)

연도	총 고용 인원	남자	20~40세	전문대졸 이상	직종				근속	
					관리/전문가	사무직	기능직	단순노무	3년 미만	10년 이상
2000	552,316	69.7	92.0	50.6	16.1	40.3	32.3	11.3	31.5	34.7
2001	554,638	69.5	92.0	51.4	15.7	40.6	33.2	10.5	30.9	33.0
2002	578,104	68.4	91.1	52.4	15.1	40.5	34.3	10.0	31.8	29.3
2003	567,968	67.9	90.2	54.1	14.9	41.1	34.3	9.7	30.6	27.5
2004	572,616	67.3	91.3	56.0	14.7	41.8	34.6	8.9	29.2	26.0
2005	586,209	67.2	88.2	57.1	14.7	42.7	34.6	7.9	31.8	23.8
2006	597,952	66.7	86.8	59.5	24.3	38.2	32.3	5.1	38.6	21.7
2007	623,507	66.0	91.4	59.7	31.7	35.1	29.7	3.5	46.2	19.5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협데이터 연결 DB

이제 두 번째로 FDI기업의 고용구조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고용구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외투기업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간 고용구조를 비교한 결과가 〈표 3-9〉와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3-9〉는 2007년 6월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난 업종별 인적 특성구조의 분석결과이고 〈표 3-10〉은 FDI기업의 고용구조를 업종별 인적 특성별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연령별 구성을 보면 FDI기업의 경우 2007년 20~40세의 젊은 층 비중은 91.5%이고 이에 따라 평균연령은 34.7세인데 비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는 20~40세 연령 비중이 84.3%이고 평균연령은 37.8세로 FDI기업에 비해 3.1세 더 높다. 학력별로 보면 FDI기업은 전문대졸 이상자 비율이 60.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FDI기업은 전문대졸이상자 비율이 50.9%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의 37.6%에 비해 13.3%p 높다. 직종별로 보면 FDI기업 중 제조업의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비중은 22.9%인데 비해 전산업은 32.9%이며, 금융



〈표 3-9〉 2007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구조 (단위: 천명, 세, 월, %)

	근로 자수	남자	20~ 40세	평균 연령	전문 대졸 이상	직종				평균 근속	근속	
						관리/ 전문가	사무직	가능직	단순 노무		3년 미만	10년 이상
제조업	2,640	73.7	86.5	37.4	37.6	20.9	22.1	48.9	7.1	75.0	44.2	22.1
도소매업	612	66.8	89.8	35.6	59.3	19.8	47.4	7.8	3.5	59.5	47.0	14.6
숙박·음식점업	176	43.2	82.0	37.2	37.5	7.0	14.0	3.8	7.0	41.6	65.0	8.8
금융·보험업	338	61.5	92.1	36.0	72.7	21.4	73.3	1.6	0.6	114.7	30.0	42.5
사업서비스업	851	67.0	88.0	35.9	73.0	47.7	32.1	8.2	6.0	54.4	54.0	13.7
소 계	6,930	68.3	84.3	37.8	52.5	31.1	28.1	27.5	6.8	70.5	47.0	20.5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2007년 6월).

보험업도 FDI기업은 0.8%에 불과하지만 전산업은 2.4%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를 비교해 보면 FDI기업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16.7%인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는 20.5%로 나타나 FDI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I기업의 경우 전산업에 비해 3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도 더 높고, 평균 근속연수도 FDI기업의 경우 64.9개월로 전산업의 70.5개월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이 외투기업의 사업체 생성이 더 많은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외투기업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 가지 여기서 가능한 추론은

〈표 3-10〉 주요 업종별 FDI 투자업체의 2000, 2007년 고용구조 (단위: %, 세, 월)

		남자	20~ 40세	평균 연령	전문 대졸 이상	직종				평균 근속	근속	
						관리/전 문가	사무직	가능직	단순 노무		3년 미만	10년 이상
2000	제조업	72.6	93.4	32.7	39.6	13.7	35.0	38.1	13.2	103.2	28.7	34.9
	도소매업	60.2	96.3	31.4	62.0	13.6	77.1	6.2	3.1	69.1	37.1	18.5
	숙박·음식점업	52.3	92.2	32.4	55.1	4.9	84.1	8.6	2.4	90.8	37.3	31.4
	금융·보험업	59.6	94.1	34.5	69.0	6.8	91.7	0.9	0.6	159.1	14.5	58.4
	사업서비스업	70.3	90.9	33.5	63.8	20.6	50.7	4.3	24.3	51.4	53.8	13.0
	소 계	69.7	92.0	33.6	50.7	16.2	49.7	22.9	11.3	100.1	32.0	34.2
2007	제조업	74.4	92.2	35.1	50.9	26.6	33.6	34.2	5.6	72.5	42.1	18.4
	도소매업	54.3	95.8	32.4	58.6	29.0	62.6	7.7	0.7	39.2	64.4	4.2
	숙박·음식점업	51.6	91.3	31.1	45.7	15.6	74.7	8.5	1.2	53.2	64.4	15.6
	금융·보험업	45.5	93.6	34.5	84.5	40.3	58.9	0.6	0.2	97.8	43.4	30.1
	사업서비스업	66.5	92.0	35.0	73.8	52.9	34.5	9.9	2.7	34.8	68.0	5.5
	소 계	65.7	91.5	34.7	60.2	33.6	43.5	19.5	3.4	64.9	50.3	16.7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표본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FDI기업의 경우 1인 이상 전규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은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낮은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이러한 원인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생존해 있는 사업체에서의 업종별 고용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2000년에 비해 2007년에 전문대졸 이상자 비율이 9.1%p 증가하였고 직종은 관리전문직은 증가, 사무직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3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감소하여 신규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증가한 점은 특징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업종에서 모두 고학력자 비율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생산직 비중은 감소하고 사무직 및 관리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3-11> 2000~2007년 영업 지속 사업장의 2000년 및 2007년 고용구조 (단위: 명, %)

		총고용 인원	남자	20~4 0세	전문 대졸 이상	직종				근속	
						관리/ 전문가	사무직	기능직	단순 노무	3년 미만	10년 이상
2000	제조업	274,244	72.7	93.4	39.6	13.6	34.9	38.3	13.2	28.3	35.2
	도소매업	40,579	60.0	96.3	61.9	13.2	77.7	6.2	2.8	36.5	18.8
	숙박·음식점업	21,206	52.2	92.1	54.8	4.9	83.9	8.7	2.4	36.7	31.9
	금융·보험업	72,322	59.5	94.2	69.0	6.8	91.7	0.9	0.6	14.3	58.5
	사업서비스업	47,189	70.0	91.0	64.6	20.2	51.2	3.6	25.0	52.5	13.7
	소 계	552,316	69.7	92.0	50.6	16.1	49.6	23.0	11.3	31.4	34.7
2007	제조업	281,705	74.7	92.0	50.0	25.0	34.0	35.0	6.0	38.4	21.1
	도소매업	82,758	54.2	95.8	55.8	25.2	67.2	6.9	0.7	61.8	5.1
	숙박·음식점업	29,431	51.7	91.5	45.3	15.2	75.0	8.8	1.1	63.6	16.3
	금융·보험업	73,752	45.3	93.2	85.0	38.1	61.1	0.6	0.2	40.2	32.9
	사업서비스업	54,102	68.3	94.9	83.9	57.4	35.6	6.1	0.9	60.5	8.1
	소 계	623,507	66.0	91.4	59.7	31.7	45.0	19.7	3.5	46.2	19.5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이직특성

앞의 <표 3-9>와 <표 3-10>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FDI기업은 전산업에 비해 저근속자의 비중이 높고, 평균 근속연수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에서 표본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추가적인 이유로 이직동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표 3-12>는 FDI기업에서의 이직률 추이로 이직자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5%대를 유지하고 있다.⁴⁾ 이직사유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는 75%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율은 25%이며 연도별 이직사유 분포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다. 주요 이직사유별로 구분해보면 전직자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직은 2000년 전체 이직자 중 40.0%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8.7%에 그쳤다. 반면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2000년 28.4%에서 2007년 43.5%로 증가하였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폐업·도산으로 인한 이직은 2000년 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 크게 증가한 후

<표 3-12> 외투기업의 연도별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단위: 명, %)

	연말기준 취업자 수	이직자	이직자 비중	이직사유		주요 이직사유별 분포					
				자발	비자발	전직자 영업	기타개 인사정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기타회 사사정	기간만 료공사 종료
2000년	485,297	123,169	25.4	73.7	25.0	40.0	28.4	1.5	0.5	9.8	11.5
2001년	500,274	133,112	26.6	65.0	26.3	29.3	31.2	1.2	1.8	13.2	8.2
2002년	524,439	147,803	28.2	70.8	25.1	30.2	35.9	1.1	0.4	15.9	6.5
2003년	524,599	134,006	25.5	73.2	24.2	26.8	40.3	0.7	0.8	12.8	8.5
2004년	544,065	137,980	25.4	67.1	27.2	20.4	40.7	0.7	0.5	15.2	8.8
2005년	573,324	148,255	25.9	70.8	26.3	22.6	42.0	0.5	0.7	15.1	8.9
2006년	599,981	150,665	25.1	71.0	26.8	20.2	43.9	2.3	0.9	13.3	8.8
2007년	624,139	161,597	25.9	68.9	26.7	18.7	43.5	1.0	0.8	11.9	11.9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 4) 고용보험통계연보는 연말기준 피보험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FDI업체 취업자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취업중인자만 계산하였음. 즉 <표 3-2>의 근로자수는 단 하루라도 FDI업체 고용된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 반면 <표 3-12>의 연말기준 취업자 수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FDI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총량이 적다

2007년에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상해고비율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큰 변화가 없다.

FDI기업의 이직특성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전체와 비교해보도록 하자. <표 3-13>에서 보듯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이직자 비중은 매년 45% 전후로 나타나 FDI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직사유를 보면 2003년 이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FDI기업의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가 26.7%에 그친 반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 2007년 36.4%로 나타났다.

<표 3-13>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의 연도별 이직자 추이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피보험자		6,747,263	6,908,888	7,171,277	7,203,347	7,576,856	8,063,797	8,536,966	9,063,301
이직자		2,964,748	3,262,072	3,348,661	3,394,505	3,364,005	3,720,733	3,894,942	4,061,173
이직자비율		44.2	46.8	47.5	47.1	44.4	46.1	45.6	44.8
제조업	자발	70.3	74.3	78.0	72.9	69.4	68.7	69.3	68.0
	비자발	19.6	25.7	22.0	27.1	30.6	31.3	30.7	32.0
도소매	자발	67.5	75.4	76.3	69.7	68.0	69.0	68.1	67.4
	비자발	23.8	24.6	23.7	30.3	32.0	30.9	31.9	32.5
숙박	자발	64.7	72.1	73.5	65.6	70.9	72.0	73.9	73.2
음식점	비자발	26.8	27.9	26.5	34.4	29.1	28.0	26.1	26.8
금융보험	자발	50.6	62.0	69.7	64.2	52.1	52.8	58.8	61.9
	비자발	41.9	38.0	30.3	35.8	47.9	47.2	41.2	38.1
사업	자발	66.3	72.6	76.0	70.4	64.4	62.7	64.2	63.8
서비스업	비자발	26.7	27.4	24.0	29.6	35.6	37.3	35.8	36.2
전 체	자발	66.2	71.8	75.5	70.3	65.8	64.5	64.7	63.6
	비자발	25.0	28.2	24.5	29.7	34.2	35.5	35.3	36.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http://www.keis.or.kr/>)

<표 3-14>는 2007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다른 고용조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중 16.1%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이지만 외투기업은 12.7%로 그 비율이 더 낮다.



〈표 3-14〉 2007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의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단위: 명, %)

	근로자 수	이직자	이직자비 중	이직사유		주요 이직사유별 분포					
				자발	비자발	전직 자영업	기타 개인 사정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기타 회사 사정	기간 만료 공사 종료
제조업	2,972,191	1,071,519	36.1	69.7	34.5	16.7	48.8	5.7	2.5	17.1	2.6
도소매	950,015	475,935	50.1	68.4	30.0	14.8	49.2	6.3	2.8	17.9	2.7
숙박음식점	219,542	152,574	69.5	74.3	30.8	10.6	58.4	8.7	1.3	9.6	3.3
금융보험	416,996	66,040	15.8	63.5	24.0	19.7	37.8	2.3	1.0	11.1	19.8
사업서비스업	1,367,426	799,296	58.5	65.8	36.1	14.4	47.3	3.0	1.3	14.0	14.6
전체	9,063,301	4,061,173	44.8	64.9	33.9	15.4	45.4	4.8	1.9	14.2	1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http://www.keis.or.kr/>)

끝으로 〈표 3-15〉는 2000년과 2007년 FDI기업의 기업특성별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이직자 비율이 높지만 이직사유는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다. 또한 투자금액 규모가 클수록 이직자 비율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도 낮으며, 현존비율은 2000년에는 현존비율이 높을수록 이직자비율과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낮았으나 2007년에는 'U'자형 패턴으로 변모하였다. 사업장규모는 규모가 클수록 이직자비율과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FDI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낮지만 이직률 또한 낮으며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도 낮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비록 FDI기업의 표본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추세적인 동향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이직자 추이만 비교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FDI기업의 경우 투자유인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지표가 양호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장의 자료의 한계에서 언급하였듯이 FDI의 유형이 신규투자인지 아니면 M&A형인지 그리고 투자

〈표 3-15〉 외투기업 사업체특성별 이직자 비중 및 이직사유별 분포

(단위: 명, %)

			연말기준 근로자수	이직자 비율	이직사유1		이직사유2					
					자발	비자발	전직 자영업	기타 개인 사정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기타 회사 사정	기간 만료 공사 종료
2000년	업종	제조업	242,821	22.7	82.3	16.2	43.8	30.9	0.9	0.6	7.8	4.1
		도소매업	37,032	22.8	87.9	11.2	52.6	30.4	0.2	0.7	8.2	1.2
		숙박·음식점업	18,762	25.8	92.1	6.5	33.3	54.0	0.3	0.1	3.3	2.0
		금융·보험업	68,030	12.4	58.0	39.9	24.1	30.7	0.1	0.1	26.6	12.0
		사업서비스업	38,840	43.9	66.7	32.9	47.3	17.8	0.0	0.1	9.9	22.3
	투자금액	5만 미만	8,707	31.2	76.8	22.3	48.5	24.7	0.4	0.8	11.7	7.3
		5~10만	12,553	20.6	84.0	14.2	43.0	31.4	0.4	1.4	9.2	2.3
		10~20만	8,102	39.1	74.1	25.3	41.4	27.8	0.2	2.3	6.9	14.6
		20~100만	54,675	22.9	86.2	13.0	48.1	30.8	0.1	0.6	7.3	4.1
		100만 이상	401,260	25.5	71.8	26.8	38.6	28.2	1.7	0.4	10.1	12.7
	현존비율	50%미만	247,696	28.5	69.6	29.1	36.2	28.3	2.5	0.6	10.2	13.6
		50~70%	54,907	23.9	70.9	28.5	47.3	19.1	0.0	0.3	6.7	20.7
		70~90%	19,378	24.4	90.0	8.9	38.3	45.0	0.0	0.6	3.1	4.1
		90%이상	163,316	21.3	81.0	17.6	45.0	30.0	0.1	0.5	11.0	4.8
	규모	30인 미만	16,687	25.2	78.6	19.8	45.2	29.0	1.1	2.4	13.8	1.2
		30~99인	40,554	26.7	88.1	11.1	51.8	31.4	0.1	0.9	7.8	1.0
		100~299인	69,068	25.9	82.7	15.8	54.5	23.4	0.6	1.0	9.4	3.3
		300인 이상	358,988	25.1	70.0	28.7	35.4	29.0	1.8	0.3	9.9	14.9
	전 체		485,297	25.4	73.7	25.0	40.0	28.4	1.5	0.5	9.8	11.5
2007년	업종	제조업	285,231	20.6	67.8	25.9	19.3	43.1	1.0	1.1	15.6	6.6
		도소매업	81,960	35.2	81.1	17.9	19.4	53.8	1.0	0.9	9.3	6.0
		숙박·음식점업	22,824	51.5	67.9	12.7	10.5	51.8	0.2	0.3	5.3	6.0
		금융·보험업	73,600	17.0	67.2	28.8	19.3	39.9	3.3	0.1	4.5	19.5
		사업서비스업	65,570	35.8	71.4	28.3	24.6	36.7	0.8	0.6	16.5	9.8
	투자금액	5만 미만	11,602	33.8	65.5	34.1	21.1	41.1	1.5	2.5	18.4	7.6
		5~10만	21,635	25.7	67.2	31.8	21.4	40.5	1.1	2.5	19.7	5.0
		10~20만	13,486	34.2	68.6	30.6	20.1	46.0	4.4	2.4	18.9	4.0
		20~100만	80,442	26.0	75.1	23.7	18.9	49.3	2.3	1.2	13.3	5.6
		100만 이상	496,974	25.5	68.0	26.6	18.5	42.7	0.7	0.6	10.8	13.6
	현존비율	50%미만	286,252	26.9	66.4	29.1	17.5	43.6	0.6	0.8	11.0	15.6
		50~70%	69,524	19.7	72.3	26.4	22.5	44.7	1.0	1.1	12.4	10.8
		70~90%	44,634	21.7	79.0	11.3	18.2	47.0	0.7	0.5	5.6	3.6
		90%이상	223,729	27.3	69.6	26.2	19.6	42.5	1.6	0.9	13.9	8.7
	규모	30인 미만	28,864	30.5	59.8	39.3	18.5	38.3	3.9	4.0	25.6	3.0
		30~99인	64,390	28.4	69.5	29.0	21.9	44.8	2.6	2.4	19.4	3.1
		100~299인	105,982	25.2	71.8	26.7	23.6	44.5	2.5	1.0	17.0	3.9
		300인 이상	424,903	25.4	68.8	25.3	17.0	43.5	0.2	0.2	8.2	16.1
	전 체		624,139	25.9	68.9	26.7	18.7	43.5	1.0	0.8	11.9	11.9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시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이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변동

FDI기업의 고용변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FDI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FDI전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변동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이 정보가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2000~2007년 기간 동안 FDI기업의 고용변동을 통해 고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것으로 본 연구가 확보한 자료는 2008년 3월 말 현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DB와 결합한 자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멸된 기업이 944개에 이른다. 즉, 현존 기업정보에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를 통해 소멸된 기업 944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고용보험 사업장에 가입한 후 기업은 존재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와 두 번째는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나 보고되지 않아 여전히 FDI기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아무튼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들 기업 정보는 일자리변동을 분석하는데 적절하지 않아 여기서는 제외하였다.⁵⁾

앞의 <표 3-2>는 FDI에 의해 총고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체 고용의 스톡변화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일자리 변화는 일자리 생성, 확장, 소멸, 축소라는 동태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사업체 생성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아니면 기존 FDI업체의 사업체 확장에 의한 고용창출정도가 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체단위로 일자리 창출을 사업체 생성 혹은 폐업과 사업체 확대 및 축소로 인한 총고용량 변동을 살펴보았다.

5) 고용보험 정보를 통해 소멸된 기업으로 분석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던 근로자는 모두 13,807명이다.

〈표 3-16〉는 인접한 2개년 간 창출된 일자리와 소멸된 일자리를 사업체 생성, 사업체 확장·폐업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사업체생성에 의한 창출된 일자리는 2000~2001년 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사업체의 확장에 의한 창출일자리가 평균 8.5%에 달해 전체 창출일자리는 평균 5.8%에 이르고 있다.

소멸일자리를 살펴보면 사업체 폐업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체 축소로 인한 소멸일자리는 감소하여 총 소멸일자리는 -1.2로 나타났으며, 2000~2007년 평균 순창출 일자리는 19.0%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체 생성 혹은 확장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440,371개이고 사업체 폐업 및 축소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는 267,931개로 순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172,440개이다.

〈표 3-16〉 사업체생성 및 사업체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 수 변동 추이 (단위: 개소, 명)

	창출 일자리 수					소멸 일자리 수		순창출 일자리
	사업체 생성		사업체 확장		총창출 일자리	사업체 축소		
	사업체 수	일자리수	사업체 수	일자리수		사업체 수	일자리수	
00~01년	335	10,443	1,588	41,112	51,555	1,082	38,790	12,765
01~02년	314	4,204	1,942	62,956	67,160	1,012	33,898	33,262
02~03년	377	5,547	1,828	40,024	45,571	1,409	44,397	1,174
03~04년	443	5,715	2,143	51,276	56,991	1,353	37,446	19,545
04~05년	505	8,004	2,408	71,637	79,641	1,474	39,938	39,703
05~06년	506	5,008	2,688	62,077	67,085	1,561	37,435	29,650
06~07년	502	5,402	2,631	66,966	72,368	1,970	36,027	36,341
평균증가율	7.0	-10.4	8.8	8.5	5.8	10.5	-1.2	19.0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표 3-17〉은 주요 업종별로 사업체생성 및 사업체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순 고용 창출인원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이 59,985명으로 전체 고용창출인원의 34.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46,247명(26.8%), 사업서비스업 32,781명(19.0%)순이다.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새로운 사업체

생정보다는 기존사업체의 확장에 의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소멸 역시 폐업보다는 축소에 의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DI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도별로 순창출 인원 변동 폭이 비교적 큰 편이며,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은 연도별로 순창출 인원 변동이 있지만 꾸준히 총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2002/2003년 연간과 2006/2007년 연간 사업체 축소로 인한 소멸 이 사업체 확장에 의한 창출보다 컸다. 또한 2006/2007년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 생성에 의한 창출인원보다 사업장 폐업에 의한 소멸일자리가 더 높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국내 자영

〈표 3-17〉 주요 업종별 사업체생성 및 사업체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 수 변동 (단위: 명)

	제조업					도소매업				
	창출			축소	순창출 인원	창출			축소	순창출 인원
	생성	확장	소계			생성	확장	소계		
00~01년	6,122	15,615	21,737	19,532	2,205	1,197	10,574	11,771	2,002	9,769
01~02년	2,005	30,174	32,179	17,876	14,303	1,102	11,853	12,955	2,165	10,790
02~03년	3,671	19,154	22,825	27,377	-4,552	783	7,649	8,432	2,515	5,917
03~04년	2,741	23,524	26,265	16,807	9,458	1,137	6,714	7,851	2,672	5,179
04~05년	3,693	31,598	35,291	18,874	16,417	1,785	9,206	10,991	2,523	8,468
05~06년	1,424	26,208	27,632	17,153	10,479	1,663	11,981	13,644	3,030	10,614
06~07년	1,737	17,875	19,612	21,675	-2,063	1,350	13,750	15,100	5,852	9,248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00~01년	25	3,319	3,344	1,484	1,860	541	3,174	3,715	1,840	1,875
01~02년	10	5,405	5,415	580	4,835	328	4,872	5,200	4,069	1,131
02~03년	69	1,728	1,797	1,164	633	100	3,183	3,283	5,978	-2,695
03~04년	102	4,898	5,000	3,584	1,416	221	3,559	3,780	3,904	-124
04~05년	297	2,297	2,594	2,580	14	78	3,987	4,065	7,177	-3,112
05~06년	26	1,767	1,793	2,247	-454	366	4,369	4,735	2,244	2,491
06~07년	63	1,944	2,007	956	1,051	268	9,028	9,296	449	8,847
	사업서비스업					기타산업				
00~01년	1,637	4,537	6,174	6,278	-104	921	3,893	4,814	7,654	-2,840
01~02년	381	6,605	6,986	3,726	3,260	378	4,047	4,425	5,482	-1,057
02~03년	516	4,183	4,699	3,419	1,280	408	4,127	4,535	3,944	591
03~04년	788	7,439	8,227	2,265	5,962	726	5,142	5,868	8,214	-2,346
04~05년	1,562	14,943	16,505	4,155	12,350	589	9,606	10,195	4,629	5,566
05~06년	873	10,741	11,614	6,859	4,755	656	7,011	7,667	5,902	1,765
06~07년	1,304	8,565	9,869	4,591	5,278	680	15,804	16,484	2,504	13,980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험데이터 연결 DB

업시장 포화상태로 2003~2004년에 이은 제2차 구조정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어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FDI직접투자 업체의 경우는 폐업사업장보다 생성사업체가 더 많아 총고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표 3-16〉과 〈표 3-17〉은 단순히 사업체나 일자리 규모를 보여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이용하는 상대적 지표를 사용하는 Davis & Haltiwanger (1992)의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Davis & Haltiwanger(1992)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JC(i,t)=\Delta E(i,t)=E(i,t)-E(i,t-1)$ if $\Delta E(i,t) > 0$; 일자리 창출량

$JD(i,t)=-\Delta E(i,t)=|E(i,t)-E(i,t-1)|$ if $\Delta E(i,t) < 0$; 일자리 소멸량

시점 t에서 일자리 창출량(JC)이란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고용규모가 늘어난 i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늘어난 일자리 수이며, 이를 산업별로 합산하면 산업별 일자리 창출량이 된다. 일자리 소멸량(JD)이란 시점 t에서 폐업하거나 고용규모가 줄어든 i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감소한 일자리 수이며, 이를 합산하면 일자리 소멸량이 된다. 일자리 창출률(JCR: job creation rate)과 일자리 소멸률(JDR: job destruction rate)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을 t-1시점과 t시점사이 두 기간의 평균 고용량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구해진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JCR_{(g,t)} = \sum_{i \in Ng} \left(\frac{\Delta E_{(i,t)} X}{X_{(g,t)}} \right), \quad \text{if } \Delta E_{(i,t)} > 0; \text{일자리창출률}$$

$$JDR_{(g,t)} = \sum_{i \in Ng} \left(\frac{-\Delta E_{(i,t)} X}{X_{(g,t)}} \right), \quad \text{if } \Delta E_{(i,t)} < 0; \text{일자리소멸률}$$

$$\text{단, } X_{(g,t)} = \sum x_{(i,t)}, \quad x_{(i,t)} = (E_{(i,t)} + E_{(i,t-1)})/2,$$

두 기간사이 평균 고용량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개념은 산업이나 기업규모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표 3-18〉은 연도별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로 연평균 일자리는 100개의 일자리 당 10.1개가 창출되고 6.2개의 일자리가 소멸하여 순일자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9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서 특징적인 점은 사업체 생성보다는 기존사업체의 확장에 의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소멸 역시 폐업보다는 축소에 의한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 재배치율은 일자리의 총변동을 의미하는데 변화폭은 크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FDI 투자업체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초과일자리 재배치율은 순일자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이동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순 고용 성장률에 비해 훨씬 높아 최근의 일자리 변화가 기존 근로자의 이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18〉 전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단위: %)

	일자리창출률(JCR)			일자리소멸률(JDR)		순 고용성장률(NET)			일자리 재배치율(EJR)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JRR)
	신설	확장	소계	축소	소계	생성	기존	소계		
00~01년	1.87	7.36	9.23	6.94	6.94	1.87	0.42	2.28	16.17	13.89
01~02년	0.72	10.82	11.55	5.83	5.83	0.72	5.00	5.72	17.37	11.65
02~03년	0.93	6.68	7.61	7.41	7.41	0.93	-0.73	0.20	15.02	14.83
03~04년	0.94	8.42	9.35	6.15	6.15	0.94	2.27	3.21	15.50	12.29
04~05년	1.25	11.21	12.47	6.25	6.25	1.25	4.96	6.21	18.72	12.50
05~06년	0.74	9.22	9.96	5.56	5.56	0.74	3.66	4.40	15.52	11.12
06~07년	0.76	9.48	10.24	5.10	5.10	0.76	4.38	5.14	15.34	10.20
합 계	7.21	63.19	70.41	43.24	43.24	7.21	19.96	27.16	113.64	86.48
평 균	1.03	9.03	10.06	6.18	6.18	1.03	2.85	3.88	16.23	12.35

주 : 순 고용성장률(NET)=JCR-JDR

일자리 재배치율(JRR)=JCR+JDR

초과일자리 재배치율(EJR)=JRR-순 고용성장률(소계)

자료 : 외투기업현황-고용보합데이터 연결 DB

아래의 〈표 3-19〉는 업종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비교한 것으로 연

도별, 업종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금

〈표 3-19〉 주요 업종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단위: %)

		일자리창출률(JCR)			일자리소멸률(JDR)		순 고용성장률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
		신설	확장	소계	축소	소계	생성	기존	소계		
제조	00/01	2.22	5.67	7.89	7.09	7.09	2.22	-1.42	0.80	14.98	14.18
	01/02	0.71	10.64	11.35	6.30	6.30	0.71	4.34	5.05	17.65	12.60
	02/03	1.27	6.64	7.91	9.49	9.49	1.27	-2.85	-1.58	17.40	18.98
	03/04	0.94	8.09	9.03	5.78	5.78	0.94	2.31	3.25	14.81	11.56
	04/05	1.22	10.40	11.62	6.21	6.21	1.22	4.19	5.41	17.83	12.42
	05/06	0.45	8.26	8.71	5.41	5.41	0.45	2.85	3.30	14.12	10.82
	06/07	0.54	5.56	6.10	6.74	6.74	0.54	-1.18	-0.64	12.84	13.48
	평균	1.05	7.89	8.94	6.72	6.72	1.05	1.18	2.23	15.66	13.43
도소매	00/01	2.63	23.26	25.89	4.40	4.40	2.63	18.86	21.49	30.29	8.80
	01/02	1.98	21.26	23.24	3.88	3.88	1.98	17.38	19.36	27.12	7.76
	02/03	1.22	11.93	13.15	3.92	3.92	1.22	8.01	9.23	17.07	7.84
	03/04	1.63	9.64	11.27	3.84	3.84	1.63	5.80	7.43	15.11	7.68
	04/05	2.33	12.04	14.37	3.30	3.30	2.33	8.74	11.07	17.67	6.60
	05/06	1.93	13.93	15.86	3.52	3.52	1.93	10.41	12.34	19.38	7.04
	06/07	1.41	14.33	15.74	6.10	6.10	1.41	8.23	9.64	21.84	12.20
	평균	1.88	15.20	17.07	4.14	4.14	1.88	11.06	12.94	21.21	8.27
음식	00/01	0.11	14.99	15.10	6.70	6.70	0.11	8.29	8.40	21.80	13.40
	01/02	0.04	21.21	21.25	2.28	2.28	0.04	18.93	18.97	23.53	4.56
	02/03	0.24	6.12	6.36	4.13	4.13	0.24	1.99	2.23	10.49	8.26
	03/04	0.35	16.75	17.10	12.26	12.26	0.35	4.49	4.84	29.36	24.52
	04/05	0.99	7.67	8.66	8.61	8.61	0.99	-0.94	0.05	17.27	17.22
	05/06	0.09	5.94	6.03	7.56	7.56	0.09	-1.62	-1.53	13.59	15.12
	06/07	0.21	6.47	6.68	3.18	3.18	0.21	3.29	3.50	9.86	6.36
	평균	0.29	11.31	11.60	6.39	6.39	0.29	4.92	5.21	17.99	12.78
금융	00/01	0.74	4.33	5.07	2.51	2.51	0.74	1.82	2.56	7.58	5.02
	01/02	0.44	6.52	6.96	5.44	5.44	0.44	1.08	1.52	12.40	10.88
	02/03	0.14	4.30	4.44	8.08	8.08	0.14	-3.78	-3.64	12.52	16.16
	03/04	0.30	4.90	5.20	5.38	5.38	0.30	-0.48	-0.18	10.58	10.76
	04/05	0.11	5.62	5.73	10.12	10.12	0.11	-4.50	-4.39	15.85	20.24
	05/06	0.52	6.18	6.70	3.18	3.18	0.52	3.00	3.52	9.88	6.36
	06/07	0.35	11.83	12.18	0.59	0.59	0.35	11.24	11.59	12.77	1.18
	평균	0.37	6.24	6.61	5.04	5.04	0.37	1.20	1.57	11.65	10.09
사업서비스	00/01	3.47	9.63	13.10	13.32	13.07	3.47	-3.69	-0.22	26.17	26.39
	01/02	0.78	13.56	14.34	7.65	7.94	0.78	5.91	6.69	22.28	15.59
	02/03	1.01	8.20	9.21	6.71	7.12	1.01	1.49	2.50	16.33	13.83
	03/04	1.44	13.62	15.06	4.15	5.00	1.44	9.47	10.91	20.06	9.15
	04/05	2.45	23.44	25.89	6.52	9.19	2.45	16.92	19.37	35.08	15.71
	05/06	1.21	14.85	16.06	9.48	11.13	1.21	5.37	6.58	27.19	20.61
	06/07	1.69	11.08	12.77	5.94	6.49	1.69	5.14	6.83	19.26	12.43
	평균	1.72	13.48	15.20	7.68	8.56	1.72	5.80	7.52	23.77	16.24

용보험업과 제조업의 순 고용 성장률이 각각 1.57과 2.23에 그친데 반해 도소매업은 11.06, 사업서비스업 7.52로 나타나 업종에 따라 순 고용 성장률 격차가 큰 편이다. 다만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일자리 재배치율이 각각 21.2, 23.7를 차지해 노동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조업의 경우 2001년과 2002년간 그리고 2004년과 2005년간에 순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고, 도소매업은 2002년 2004년간 그리고 2006년과 2007년간 순 일자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음식숙박업은 2002년 이래 일자리성장률이 매우 낮아 자영업시장 구조조정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보험업은 2002년부터 2005년간 순 고용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사업서비스업은 2003년과 2005년간 순 고용 성장률이 높았다.

4.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지난 8년 동안의 고용변동 및 고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 효과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의 연도별 총고용량 증감률을 전체 사업체의 고용증감률과 비교한 결과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6년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업체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은 2.5%이다. 이에 비해 2000~2007년 기간 동안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7%로 전 사업체 고용증가율에 비해 1.2%p 높아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외투기업의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기업의 외투기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둘째, 외투기업 고용구조 특징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외투기업의 평균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30인 이상 전체 평균연령인 38.3세 보다 낮으며 학력별로는 외투기업의 경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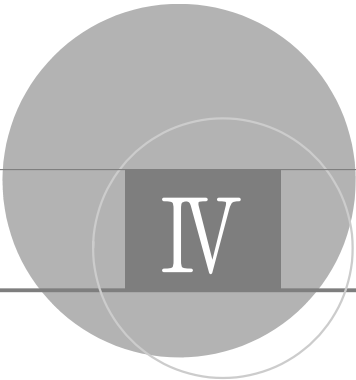
문대졸 이상 고학력비중이 높다. 근속연수별로 비교하면 외투기업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자가 16.7%인데 비해 전산업의 경우 27.6%로 나타나 외투기업이 장기근속자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투기업의 이직률 추이에서는 외투기업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비해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20%p이상 낮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율 역시 외투기업이 더 낮아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에 비해 보다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넷째, 외투기업의 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0~2007년 평균 순 창출 일자리는 19.0%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체 생성 혹은 확장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440,371개이고 사업체 폐업 및 축소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는 267,931개로 순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172,440개이다. 순 고용 창출인원을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도소매업이 59,985명으로 전체 고용창출인원의 34.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46,247명(26.8%), 사업서비스업 32,781명(19.0%)순이다.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새로운 사업체 생성보다는 기존사업체의 확장에 의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소멸 역시 폐업보다는 축소에 의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더 높으며, 고용구조 면에서도 고학력·고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외국인 투자의 고용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고용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신규 고용 창출의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문제가 심각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시급히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투자재원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국의 정부들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고용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실증적 분석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경쟁하게 된다. 산업조직론의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및 인사관리 능력, 광범위한 수출 네트워크, 공급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기업

평판 등과 같은 우월한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¹⁾ 지역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형자산들은 대부분의 경우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하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비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실제로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존재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존재는 국내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되거나 혹은 공동사업을 참여한 근로자들은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경험 있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이직하여 국내기업에 고용되면 국내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 특수적 지식(firm-specific knowledge)도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상품과 생산 및 마케팅기술을 접하거나 전방 또는 후방의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적 원조를 받음으로써 이전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또한 어떤 산업에서 투입물에 대한 안정적 수요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입물을 제공하는 국내기업이 훈련과 경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준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존재는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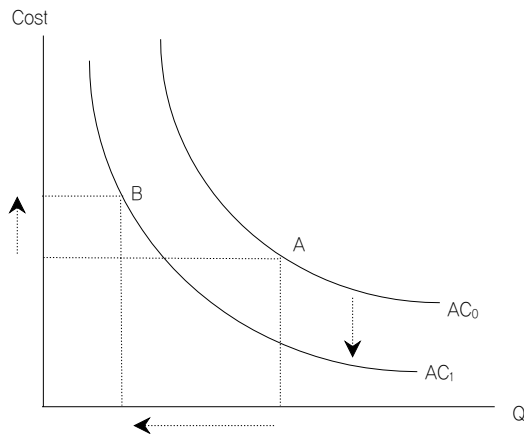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단기에 나타나기 쉽다. 만약 생산에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계비용이 낮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국내기업들에 비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국내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상품수요를 잠식하고 국내기업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생산성은 감소한다. 만약 이러한 수요효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크다

1) 이에 관해 정리한 문헌으로는 Grieco(1986)와 Rugman(1986) 참조

면 순 국내생산성은 설혹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술 또는 기업 특수적 자산을 국내기업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는 [그림 4-1]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AC_0 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평균생산비용이다. 현재 국내기업의 생산량과 평균비용은 A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전 등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spillover)는 국내기업의 평균비용을 AC_0 에서 AC_1 로 낮춘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와 같이 새로운 AC_1 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B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림 4-1]에서의 순 효과는 전반적인 생산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림 4-1] 외국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산출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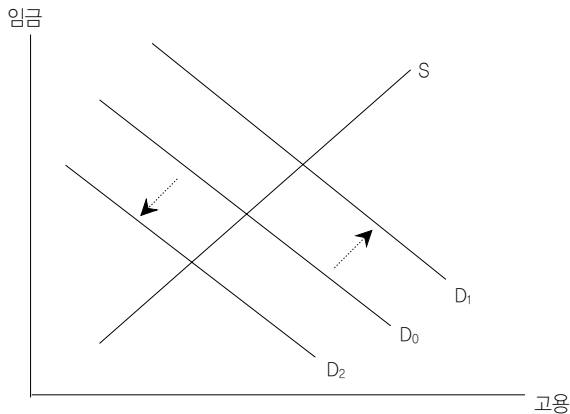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에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수요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다. 따라서 산출물 시장에서의 변화는 노동수요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총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측을 토출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수요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1]에서와 같은 평균비용의 감소가 노동절약적인 성격, 즉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인력의 보다 효율적 활용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생산성과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외부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높은 생산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기업에게도 확산된다면 국내기업의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상품시장 수요를 잠식한다면 국내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4-2]에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투자는 경우에 따라 국내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국내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림에서 D_1 로의 이동은 국내기업의 노동수요의 증가를 나타내며 D_2 로의 이동은 국내기업의 노동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낮아진다.

[그림 4-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외국인 투자가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외부효과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효과와 후자의 효과 모두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국내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가설 1: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지분은 동일 산업의 내국인 기업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내국인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미치는가?

가설 1과 가설 2는 다음과 같은 로그 선형적(log-linear)인 노동수요함수를 통해 동시에 검증될 수 있다.

$$E_{ijt} = C + \beta_1 DFL_Firm_{ijt} + \beta_2 DFL_Sector_{jt} + \beta_3 DFL_Firm_{ijt} \times DFL_Sector_{jt} + \beta_4 X_{ijt} + \epsilon_{ijt} \quad (1)$$

기업 t 시점에서 j 산업의 기업 i 의 고용을 종속변수로 투입물의 벡터 X_{ijt} 와 두 가지 외국인 지분소유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DFL_Firm_{ijt} 는 기업수준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이며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일 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이 그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킨다면 DFL_Firm_{ijt} 의 추정계수의 값은 플러스(+)가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가 될 것이다. DFL_Sector_{jt} 는 특정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비율이다. 만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이 다른 국내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DFL_Sector_{jt} 의 추정계수는 플러스(+)가 되어야 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마이너스(-)의 추정계수가 관

차되어야 한다. 기업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산업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교차항 $DFL_{Firm_{ijt}} \times DFL_{Sector_{jt}}$ 은 외국인 기업이 다른 외국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다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외국인 기업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추정계수는 플러스(+)이어야 한다. 만일 외국인 지분보유 기업이 다른 외국인 지분보유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추정계수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3. 자료 및 변수

이 장에서는 기업별 자료를 사용한다. 기업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작성한 재무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지분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표 4-1〉에 나타난 것처럼 표본 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난다. 2003년이 1,666개 업체로 가장 많고 2005년이 27개 업체로 가장 적다. 이는 주로 외국인 지분에 관한 자료의 결측치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자료는 최근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 많은 결측치와 매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업은 상장기업이거나 코스닥 등록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많은 기업들의 결산이 주로 12월 말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명목치들은 2000년 기준의 도매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치로 환산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한다. 우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로 급여 및 임금을 통제하였고, 생산함수의 구성요소인 유형고정자산과 토지자산을, 그리고 산출량을 나타내는 매출액을 통제하였다.

〈표 4-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기간 동안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은 5.1%이다. 그러나 3.9%~5.9%까지 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평균 종업원 수는 약 273명이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균 종업원 수는 분석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은 다른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용은

〈표 4-1〉 표본기초통계

	lemp	lasset_f	lsales	lland	fs	fdi_sector	fsfdi	표본수
평균	5,609	17,546	18,112	16,015	0.051	0.173	0.009	9363
최소값	0,000	10,160	6,586	6,383	0,000	0,000	0,000	9363
최대값	10,998	24,856	24,484	22,404	1,000	0.792	0.627	9338
표준편차	1,378	1,837	1,738	1,940	0.125	0.074	0.026	9363
1996	6,554	18,364	18,943	16,432	0.054	0.107	0.006	544
1997	6,112	17,998	18,610	16,076	0.052	0.113	0.007	786
1998	5,972	17,978	18,413	16,295	0.054	0.128	0.008	842
1999	5,810	17,862	18,311	16,298	0.054	0.143	0.008	1006
2000	5,620	17,566	18,096	16,185	0.046	0.173	0.008	1204
2001	5,393	17,289	17,892	15,876	0.048	0.188	0.009	1522
2002	5,335	17,255	17,885	15,791	0.044	0.186	0.009	1598
2003	5,271	17,228	17,842	15,723	0.059	0.242	0.015	1666
2004	5,165	16,968	17,468	15,627	0.054	0.176	0.011	168
2005	4,639	16,534	17,251	15,752	0.039	0.020	0.005	27

주 :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 ×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표 4-2〉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lemp	lasset_f	lland	lsales	lsawage	fs	fdi_sector
lemp	1	0.836	0.722	0.852	0.868	0.249	-0.046
lasset_f		1	0.858	0.876	0.783	0.249	-0.041
lland			1	0.749	0.667	0.204	-0.084
lsales				1	0.799	0.252	-0.048
lsawage					1	0.227	-0.081
fs						1	0.068
fdi_sector							1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상관관계는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함.

외국인 투자지분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fdi_sector)’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4. 분석결과

가. OLS 분석

〈표 4-3〉은 자료를 pooling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선 기본적인 통제변수와 외국인 지분만을 포함시킨 첫 번째 모델의 결과를 보면 외국인 지분의 추정계수는 정(+)이다. 여기에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변수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fdi_sector)’를 투입하면 이 변수의 추정계수는 부(-)가 된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외환위기의 시기가 포

〈표 4-3〉 회귀분석(Pooling OLS):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Constant	-7.166*** (0.074)	-7.043*** (0.080)	-7.107*** (0.079)
lasset_f	0.144*** (0.010)	0.140*** (0.0101)	0.136*** (0.010)
lland	0.037*** (0.006)	0.040*** (0.006)	0.036*** (0.006)
lsales	0.236*** (0.009)	0.234*** (0.009)	0.240*** (0.009)***
lsawage	0.363*** (0.006)	0.363*** (0.006)	0.361*** (0.006)
fs	0.202*** (0.050)	0.569*** (1310)	0.531*** (0.127)
fdi_sector		-0.333*** (0.091)	1.223*** (0.119)
fsfdi		-1.727*** (0.618)	-1.668*** (0.601)
Year-dummy	No	No	Yes
Adjusted R2	0.839	0.840	0.849
N	7432	7432	7432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 ×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연도별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보면 외국인 지분은 투자 기업에는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며, 국내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도 시장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는 기업을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연도를 통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추정계수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3〉과 동일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의 고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4〉 단순 회귀분석(Pooling OLS):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nstant	-5.891*** (0.146)	-6.165*** (0.143)	-5.727*** (0.135)	-5.568*** (0.133)
lasset_f	0.035** (0.016)	0.012 (0.016)	0.176*** (0.012)	0.175*** (0.012)
lland	0.080*** (0.010)	0.083*** (0.010)	-0.005 (0.007)	-0.014* (0.007)
lsales	0.292*** (0.016)	0.313*** (0.015)	0.156*** (0.010)	0.153*** (0.010)
lsawage	0.308*** (0.010)	0.314*** (0.010)	0.363*** (0.008)	0.355*** (0.008)
fs	0.713*** (0.175)	0.699*** (0.169)	0.468** (0.203)	0.316 (0.197)
fdi_sector	-0.288* (0.148)	1.440*** (0.182)	-0.225** (0.105)	1.380*** (0.145)
fsfdi	-1.917*** (0.804)	-2.168*** (0.776)	-1.994** (1.008)	-1.262 (0.978)
Year-dummy	No	Yes	No	Yes
Adjusted R2	0.742	0.761	0.687	0.707
N	3382	3382	4050	4050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의 수자는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4-5〉는 기업을 규모별로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앞서와 같이 연도를 통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추정계수의 패턴이 달라진다. 연도를 통제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고용과는 정(+)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사이의 고용은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5〉 단순 회귀분석(Pooling OLS):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상장기업		코스닥기업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nstant	-6.922*** (0.119)	-7.438*** (0.118)	-6.935*** (0.182)	-6.976*** (0.182)
lasset_f	0.114*** (0.015)	0.094*** (0.014)	0.172*** (0.016)	0.183*** (0.016)
lland	0.071*** (0.009)	0.080*** (0.009)	-0.015 (0.010)	-0.029*** (0.010)
lsales	0.239*** (0.014)	0.265*** (0.013)	0.222*** (0.014)	0.224*** (0.014)
lsawage	0.352*** (0.009)	0.353*** (0.009)	0.382*** (0.010)	0.381*** (0.010)
fs	0.597*** (0.170)	0.726*** (0.163)	-0.084 (0.261)	-0.188 (0.259)
fdi_sector	-0.760*** (0.131)	1.543*** (0.180)	0.189 (0.138)	1.103*** (0.172)
fsfdi	-0.917 (0.785)	-1.963*** (0.757)	0.334 (1.310)	0.801 (1.296)
Year-dummy	No	Yes	No	Yes
Adjusted R2	0.819	0.834	0.713	0.721
N	3963	3963	2517	2517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 ×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의 수치는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나. 패널 분석

이상에서의 분석은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하지만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4-6〉은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이다. Random effect 모형에 의하면 앞의 OLS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즉, 외국인 투자는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고용과는 정(+)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사이의 고용은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xed effect 모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6〉 패널분석: 전체

	Random effect	Fixed effect
Constant	-6.246*** (0.111)	-5.487*** (0.175)
lasset_f	0.221*** (0.009)	0.218*** (0.011)
lland	0.022*** (0.006)	0.020*** (0.007)
lsales	0.218*** (0.008)	0.210*** (0.009)
lsawage	0.255*** (0.007)	0.222*** (0.008)
fs	0.158** (0.074)	0.072 (0.075)
fdi_sector	0.239** (0.115)	0.063 (0.129)
fsfdi	-0.827** (0.339)	-0.554 (0.175)
Year-dummy	Yes	Yes
R2	0.841	0.838
N	7432	7432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 ×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의 수자는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이러한 결과가 혹시 기업규모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

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지분은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어느 모형을 사용하는가와 관계없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된 추정계수의 값은 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7〉 패널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Constant	-5,356*** (0,205)	-5,390*** (0,143)	-5,426*** (0,164)	-5,755*** (0,226)
lasset_f	0,235*** (0,015)	0,272*** (0,017)	0,180*** (0,012)	0,189*** (0,014)
lland	0,015* (0,009)	0,005 (0,010)	0,011 (0,008)	0,025*** (0,009)
lsales	0,239*** (0,013)	0,237*** (0,015)	0,172*** (0,010)	0,184*** (0,012)
lsawage	0,176*** (0,009)	0,149*** (0,010)	0,299*** (0,009)	0,287*** (0,011)
fs	0,127 (0,092)	0,036 (0,160)	0,152 (0,133)	0,084 (0,136)
fdi_sector	0,069 (0,152)	-0,032 (0,160)	0,773*** (0,167)	0,345 (0,216)
fsfdi	-0,810** (0,804)	-0,586 (0,397)	-0,663 (0,673)	-0,443 (0,695)
Year-dummy	Yes	Yes	Yes	Yes
R2	0,733	0,722	0,700	0,692
N	3382	3382	4050	4050

주 :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 ×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의 수자는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4-8〉은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을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사용된 모형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 관련변수들의 추정계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반면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관련 유의한 추정계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효과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8〉 패널분석: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상장기업		코스닥기업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Constant	-5.745*** (0.172)	-4.459*** (0.224)	-6.459*** (0.218)	-6.156*** (0.287)
lasset_f	0.217*** (0.013)	0.187*** (0.014)	0.189*** (0.015)	0.183*** (0.017)
lland	0.035*** (0.008)	0.030*** (0.008)	0.009 (0.009)	-0.017* (0.010)
lsales	0.213*** (0.011)	0.201*** (0.012)	0.240*** (0.013)	0.249*** (0.015)
lsawage	0.222*** (0.009)	0.195*** (0.010)	0.293*** (0.010)	0.262*** (0.012)
fs	0.211** (0.088)	0.170* (0.088)	-0.154 (0.140)	-0.177 (0.141)
fdi_sector	0.196 (0.155)	0.125*** (0.161)	-0.082 (0.171)	-0.517** (0.205)
fsfdi	-1.047*** (0.389)	-0.953** (0.388)	0.842 (0.734)	0.935 (0.747)
Year-dummy	Yes	Yes	Yes	Yes
R2	0.822	0.820	0.710	0.721
N	3963	3963	2517	2517

주: 1) lasset_f=유형고정자산의 로그 값, llland=토지자산의 로그 값, lsales=매출액의 로그 값, lsawage=급여 및 임금의 로그 값, fs=외국인 지분, fdi_sector=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fsfdi=외국인 지분×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의 가중평균
 2) ()안은 표준오차 .의 수자는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5. 소결

이 장에서는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투자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다른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 투자는 투자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다른 국내기업의 고용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다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전략적 노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투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강조되어 왔으나,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특히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창출 능력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¹⁾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환란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0~2003년 기간 중 큰 폭으로 FDI 유입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등 각 지자체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1) 2004~2007년 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비중을 산업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도소매 등 유통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0%, 13.4% 및 12.6% 등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비중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FDI 비중은 35.2%이다(전기 및 전자 14.6%, 화학 6.0%, 수송용 기계 5.8%, 이상 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유치가 국가 및 지역발전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투자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연관모형과 연계된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형태의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별·산업별 구조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예를 들면 금융서비스 또는 사업서비스)으로의 외국인 투자의 외생적 증가가 어느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모의실험해 보고자 한다.

지역 IO모형과 연계한 CGE 기반 노동시장 영향평가는 노동연구원의 점별 노동시장 부문균형 연구를 보완하고 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FDI 고용영향의 경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FDI 유입국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 유입국의 자본스톡을 증가시켜 생산능력이 확충되는 경로이다. 이 경우 공급능력이 확장되면서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기술이전 및 외부효과로 유입국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이 경우 부존자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규모의 생산 및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앞의 2가지 동태적 효과와 함께, FDI 유입의 즉각적인 영향은 유입국에서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로일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 및 자원재배분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재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수요증대효과, 무역창출효과 및 동태적인 경쟁제고 효과 등의 경로를 거론할 수 있겠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영향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당연히 복잡적이다. 즉, 다양한 경로를 통해 FDI가 현실경제에 복합적, 일반 균형적 영향을 작동시키고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부분균형분석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FDI 유입에 따른 자본스톡 증가는 한편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고용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생산성 증가 경로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축소시킬 개연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대가 수반될 경우 고용창출(및 임금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DI가 유입되는 산업특성도 고용창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case by case 접근의 중요성). 가령 산업의 경쟁력 유무(경쟁력 산업 또는 사양 산업), 자본집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특성도 고용영향을 차별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FDI의 고용영향이 일반균형적 성격을 가지면서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고용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 모형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가지 경로, 또는 단일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FDI의 고용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경제학 이론을 반영한 부분균형 방정식을 확립하고 이를 추정하여 FDI의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수요를 반영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FDI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이 이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산업연관분석(입지계수법 및 지역 IO 분석)을 사용하여 FDI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우선 FDI에 따른 최종수요 증가를 추정하고 산업별로 배분한 후, 최종수요 벡터가 유발하는 생산액을 투입-산출관계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다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FDI의 고용영향의 다양한 경로를 일반균형체계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CGE 모형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FDI 고용영향 사례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FDI 증가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한 가정 하에서 모의실험을 해보기로 한다.



3. 분석방법

가. CGE 분석방법

FDI 증가의 고용효과

여타 방법론에서와 같이 CGE 접근이 우선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자본스톡 증가, 생산성 증가, 생산증가, 수요 증가 등 다양하고 복잡한 FDI 유입의 충격을 어떤 외생적 변화로 개념화하고 어느 정도로 충격을 정량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CGE 모형 체계는 이론적으로 각각의 경우 또는 몇 개의 경우를 동시에 외생적 변화로 개념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첫째,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의 일반 균형적 영향이 중복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로 1, 2, 3 모두 일반균형체계의 과정에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중복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중복의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외생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다시 자의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적합한 모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생산성 경로에 따른 고용효과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충격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개념화에 성공하더라도 외생적 충격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성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한계성 및 강력한 가정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활용하여 FDI 증가의 고용효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우선, FDI 유입의 충격을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증가 및 생산성 증가, 또는 자본증가로 개념화하고, 외생적 충격을 가설적으로 정량화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용의 변화율(산업별 고용증감율, 숙련노동 및 비숙련노동으로 구분)을 일반균형체계 내에서 계산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CGE 분석에서 내생적으로 계산된 숙련 및 미숙련 노동증가율을, 2003년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고용자 수 및 고용계

수와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최종적인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연관표 자료, 즉 산업별 고용자 수, 고용계수 및 산출액은 〈표 5-1〉과 같다.

〈표 5-1〉 2003년 산업연관표의 고용-산출 구조

	고용계수 (명/10억)	피용자(명)	비숙련 노동(명)	숙련 노동(명)	산출액 (백만 원)
농림수산	3,7157	145,759	102,304	43,455	39,228,075
광산품	5,1797	17,403	12,215	5,188	3,359,841
음식료품	3,1816	217,225	152,463	64,762	68,276,135
섬유, 가죽	8,3876	376,556	264,293	112,263	44,894,193
목재·종이, 인쇄	6,4531	210,568	147,791	62,777	32,630,523
석유, 석탄	0,2682	13,974	9,808	4,166	52,105,911
화학제품	3,3152	358,803	251,833	106,970	108,229,898
비금속광물	4,2447	99,377	69,750	29,627	23,412,078
제1차 금속	1,4687	112,381	78,877	33,504	76,515,180
금속제품	7,4185	212,612	149,226	63,386	28,659,751
기계, 정밀기기	5,6980	354,126	248,550	105,576	62,149,117
전기, 전자	3,6621	583,755	409,720	174,035	159,402,554
수송 장비	3,1261	329,830	231,497	98,333	105,507,433
기타(가구)	7,4739	99,487	69,827	29,660	13,311,190
전기, 가스, 수도	1,7750	71,742	50,353	21,389	40,416,956
건설	11,1320	1,570,130	1,102,025	468,105	141,046,478
도소매, 음식·숙박	14,7607	1,965,974	1,379,856	586,118	133,189,814
운수, 보관	10,5198	655,755	460,254	195,501	62,335,179
통신, 방송	3,5696	153,995	108,084	45,911	43,140,118
금융, 보험	7,9309	595,827	418,192	177,635	75,127,296
부동산, 사업서비스	5,3799	974,026	683,639	290,387	181,050,104
공공, 교육·보건	14,0622	2,371,285	1,664,331	706,954	168,628,743
문화오락	7,8992	563,067	395,199	167,868	42,706,000
전산업	7,0683	12,053,657	8,460,088	3,593,569	1,705,322,567

자료 : 2003년 산업연관표, GTAP 데이터베이스

주 : 1) GTAP 데이터베이스의 비숙련 및 숙련노동비율 (0.7019대 0.2981)을 기반으로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자 수를 비숙련노동 및 숙련노동으로 구분함

GTAP 동학모형은 서비스 장벽완화, FTA 또는 관세 삭감 등의 외생적 충격이 FDI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태 및 자본축적 분석과 달리 FDI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실험을 생략하기로 한다.



CGE 모형을 활용한 FDI 영향분석의 기본적 개요는 전술한 바와 같다. 정책변화를 개념화한 외생변수의 충격을 일반균형체계 내에서 모의실험하고, 산업별 유형별 고용의 변화(산업별 고용증감율)을 내생적으로 계산한 후,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고용자 수와 연결하여 고용유발효과(인원)를 계산하면 된다. FDI의 영향을 외생적 충격으로 정량화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한 가정 하에 분석이 가능하다.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GTAP CGE 모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GE 분석결과(고용변동)를 2003년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고용자 수와 연계하기 위하여, GTAP 57개 산업과 산업연관표 78개 산업(중분류)을 결합하여 23개 산업으로 통합 하였다(〈표 5-1〉 참조). 또한 FDI 공여국 별 FDI 증가의 효과 추정 등 향후 작업을 위하여 한국, 일본, 미국, EU15, 기타세계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일본, 미국, EU15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FDI 공여국일 뿐 아니라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자연자원, 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등 5개의 생산요소를 가정하였다. 자본을 제외한 비숙련노동-숙련노동 등 4개 생산요소를 이동제한 생산요소(sluggish factor)로 규정하였다. 일반균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과정 2에 따른 불안정성(신축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요소의 이동성(mobility)을 약화시킨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전환탄력성을 -0.5로 가정하여 생산요소의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능성 및 타 산업으로의 이동성을 제약하였다. 이동가능생산요소(mobile factor)인 자본의 전환탄력성도 -1 정도로 제약하였다.

CGE 모형 체계 내에서 IO 분석과 같은 안정적 특성(고정성)을 부여한 구조로 통상적인 CGE 모형보다 자원이동이 제약되고 거시경제 환류효과도 완화된 특성을 부여하는 한편, 목적변수인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산업별 변화율을 모형 안에서 내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분석기간에 따라 CGE 모형의 여러 가정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고용과급효과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에 걸친

고용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3가지 형태의 CGE 모형을 운용하고자 한다.

첫째, 정태모형 분석은 외생적 변화의 단기 영향(short-run effect), 즉 정태효과를 파악한다. 과정 2에서 자본축적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즉 모든 생산요소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산업간 이동에 따른 정태적 효율성의 변동만이 발생할 것이다. 외생적 변화의 직접적인 1차 효과, 즉 가격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가지 형태의 CGE 모형 중에서 IO 분석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즉 CGE 정태분석 결과는 IO 분석방법에 가격효과와 일반균형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모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Hertel (1997)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둘째,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 모형 분석이다. 외생적 변화의 중기 고용영향을 파악(intermediate-run effect)할 수 있는 모형이다. 정태모형의 구조 속에서 동태적 특성인 자본축적 과정을 구현한다. 즉, 정태적 효율성 증가에 따라 저축 및 투자가 증가하여 공급 및 수요능력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각 산업에서의 수요를 견인하게 된다. 정태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수요-공급능력 및 거시경제 환류효과가 증대하면서 간접적 2차적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Francois and McDonald (1996)는 자본축적 모형의 자본축적식 유도과정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셋째, 동학모형(recursive dynamic model) 분석은 외생적 변화(정책변화)의 장기적 영향(long-run effect)을 파악한다. 시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GTAP 시간반복적 동학모형은 FDI를 명시적인 내생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다음 절 참조). 동학모형의 적응적 기대가설을 도입하고 있는 자본축적 관련식 등 모형구조에 대해서는 Ianchovichina and McDougall, (2001)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 CGE 동태분석(장기)

동학모형에서의 FDI 관련식

GTAP 동학모형에서는 자본의 위치와 소유권을 구별한다. 정태모형에서



는 각 권역의 기업이 권역내 자본은 100%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동학모형에서는 기업이 지역의 자본을 소유하며 지역의 가게 및 국제신탁(외국인 투자를 중계하는 국제금융기관)이 지역기업 자본에 대한 지분, 즉 금융자산을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각 지역의 가게는 각 지역 기업에 대한 지분 및 국제신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역기업 자본의 소유권 가치를 $WQ_FIRM(r)$, 지역가게의 지역기업 지분을 $WQHFIRM(r)$, 글로벌 트러스트의 지역기업 지분을 $WQTFIRM(r)$ 이라 하면,

$$WQ_FIRM(r) = WQHFIRM(r) + WQTFIRM(r).$$

또한 지역가게의 총자산을 $WQHHLD(r)$, 지역가게의 국제신탁에 대한 지분을 $WQHTRUST(r)$ 라 하면,

$$WQHHLD(r) = WQHFIRM(r) + WQHTRUST(r).$$

위 두 식을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기업 소유권 가치 변동 방정식과 지역가게 총자산의 변화를 묘사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WQ_FIRM(r)*wq_f(r) &= WQHFIRM(r)*wqhf(r) + WQTFIRM(r)*wqtf(r), \\ WQHHLD(r)*wqh(r) &= WQHFIRM(r)*wqhf(r) + WQHTRUST(r)*wqht(r). \end{aligned}$$

여기에서 wq_fh , $wqhf$ 및 $wqtf$, wqh , $wqht$ 는 각각 WQ_FIRM , $WQHFIRM$, $WQTFIRM$, $WQHHLD$ 및 $WQHTRUST$ 의 퍼센트 변화이다. GTAP 동학모형 분석은 정책실험 결과 지역기업 소유권 가치(WQ_FIRM)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또한 외국인 보유 국내기업 자산비중($WQTFIRM/WQ_FIRM$)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양 내생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각종 정책변화로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동학모형의 구성

동학모형은 추정되는 기간에 걸쳐 각 권역의 GDP 증가, 숙련 및 비숙련 노동 증가를 외생적으로 가정하여 시간에 걸친 정상적 변화를 추정하고(base run, base rerun), 국제행사, FTA 등 정책변화 충격까지 함께 고려할 때의

변화를 추정한(policy run) 후 양 결과의 차이(policy run과 base rerun)를 계산하여 정책의 경제적 효과(예를 들면 산업별 고용변동)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GTAP 동학모형을 구성하였다. 시간개념을 도입한 동학모형의 모의실험 체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2001~2018년)을 2001~2008년, 2009~2010년, 2011~2014년 및 2015~2018년 등 4개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I기(2001~2008년)에서는 2008년 현재시점까지 GDP, 숙련 및 비숙련노동 증가를 update하였고, II기(2009~2010년)에 정책 시나리오를 실행하였다. 이후 III기(2011~2014년) 및 IV기(2015~2018년)에 정상적인 베이스라인 결과와 정책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시나리오가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누적적 중장기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 2001~2018년에 걸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시간에 걸친 베이스라인 및 정책실험을 위해서는 권역별 GDP 증가율, 숙련노동 및 비숙련노동 증가율에 대한 외생적 가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3변수에 대한 가정을 수립하였다.

첫째, World Bank의 Global Economic Perspective 통계(이하 GEP)를 사용하여 GDP 권역별 기간별 증가율을 작성하였다. GEP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권역별로 2007년까지의 실적치(2008년은 추정치)를 입력하였고, 2009~2020년 수치에 대해서는 GEP 2005년의 2006~2015년 기간 장기전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숙련노동 및 비숙련노동 장기 전망치: Ahuja and Filmer(1995), CPB(1999)를 정리한 Walmsley(2006)를 사용하여, 2001~2020년의 권역별 비숙련 및 숙련노동 증가율을 입력하였다.

4. 정책실험 I: FDI 고용영향의 3가지 경로

앞 절에서는 FDI 유입의 충격을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증가 및 생산성 증가, 또는 자본증가 등 3가지 경로로 개념화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상 3가지 경로의 고용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경우 산업별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반균형체계 내에서 계산하고 고용유발인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 살펴볼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 I)는 FDI 유입에 따른 해당 산업생산 증가 1%의 산업별 고용효과이며²⁾, 다시 전자산업에서의 1% 생산증가(시나리오 I-A)와 도소매 및 음식·숙박산업에서의 1% 생산증가(시나리오 I-B) 등 2가지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CGE 모형(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 II)는 자본증가의 산업별 고용효과이다. 시나리오 II 또한 다시 2가지 세부 시나리오(자본스톡·금융자산 가치의 0.1% 증가효과 및 자본스톡가치의 0.1% 증가효과)로 구성된다. 자본스톡·금융자산 변수는 동학모형에만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동학모형 결과만을 보고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 III)은 전자산업 생산성 1% 증가의 일반균형 고용효과이다. 역시 장기 동태분석, 중기 자본축적분석, 단기 정태분석 등 3가지 분석결과가 보고될 것이다.

가. 정책실험 결과: I-A와 I-B

전기·전자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산출액 규모 및 FDI 점유비중이 유사한³⁾ 산업이나 고용 및 취업계수에서는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고용 및 취업계수가 전기·전자산업 계수의 3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표 5-1〉 참조). 전체 직접투자 대비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은 2004~07 기간 중 평균 14.5%이며,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평균 13.4%로 양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점유율이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양 산업에서 생산 1%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IO분석 경험에 따르면 1% 최종수요 증가는 약 1.072%의 산출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산출 1% 증가 분석은 최종수요 0.932% 증가 분석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본 CGE 모형의 생산증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IO 분석에서와 같은 최종수요증가의 효과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기·전자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산출액은 각각

1) 시나리오 I-A: 전자산업에서의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율의 변화

3가지 분석방법의 CGE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계산한 고용변동률은 <표 5-2>와 같다. 동학모형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고용증가율이 각각 0.37% 및 0.36% 증가하였으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각각 0.65% 및 0.64% 증가하였고,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0.74% 및 0.73%로 동태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2>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단위: %)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040	-0.040	-0.030	-0.040	-0.060	-0.060
광산품	-0.060	-0.060	-0.060	-0.070	-0.160	-0.160
음식료품	-0.010	-0.010	-0.040	-0.050	0.000	-0.010
섬유, 가죽	-0.150	-0.150	-0.140	-0.140	-0.180	-0.190
목재·종이, 인쇄	-0.050	-0.050	-0.080	-0.090	-0.100	-0.110
석유, 석탄	-0.040	-0.040	-0.090	-0.100	-0.050	-0.060
화학제품	-0.090	-0.090	-0.120	-0.130	-0.160	-0.160
비금속광물	-0.010	-0.010	-0.070	-0.080	-0.090	-0.090
제1차금속	-0.100	-0.100	-0.120	-0.130	-0.160	-0.170
금속제품	-0.060	-0.050	-0.080	-0.090	-0.110	-0.120
기계, 정밀기기	-0.050	-0.050	-0.060	-0.070	-0.090	-0.100
전기, 전자	0.370	0.360	0.650	0.640	0.740	0.730
수송장비	-0.120	-0.120	-0.130	-0.140	-0.160	-0.170
기타(가구)	-0.130	-0.120	-0.130	-0.140	-0.170	-0.170
전기, 가스, 수도	-0.030	-0.030	-0.060	-0.070	-0.030	-0.030
건설	0.110	0.100	0.090	0.080	0.130	0.130
도소매, 음식·숙박	0.010	0.010	0.010	0.000	0.030	0.020
운수, 보관	-0.040	-0.040	-0.070	-0.080	-0.070	-0.080
통신, 방송	-0.010	-0.010	-0.020	-0.030	0.000	-0.010
금융, 보험	0.000	0.000	0.020	0.010	0.010	0.00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10	-0.010	-0.030	-0.040	-0.020	-0.030
공공, 교육·보건	0.000	0.000	0.030	0.020	0.020	0.020
문화오락	-0.010	-0.010	0.010	0.000	0.010	0.000

전자산업에서의 1% 생산증가에 따른 <표 5-2>의 고용증가율을 산업연관표의 고용자 기준으로 연결하여 계산한 산업별 고용유발인원은 <표 5-3>과 같다. 전 산업에서의 고용유발 총인원을 살펴보면 단기 정태모형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2641명 및 903명 증가하였다. 중기 자본축적모형에서는 각각 2134명 및 558명 증가로 고용지수 증가가 둔화되었다. 장기 동학모형 분석결과에서는 다시 유발된 고용증가 인원이 중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1116명 및 419명 증가에 멈추고 있다. 단기보다 중기에서 중기보다 장기에서 고용유발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 등 가격이 변동하였기 때문이다.

<표 5-3>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41	-17	-31	-17	-61	-26
광산품	-7	-3	-7	-4	-20	-8
음식료품	-15	-6	-61	-32	0	-6
섬유, 가죽	-396	-168	-370	-157	-476	-213
목재·종이, 인쇄	-74	-31	-118	-56	-148	-69
석유, 석탄	-4	-2	-9	-4	-5	-2
화학제품	-227	-96	-302	-139	-403	-171
비금속광물	-7	-3	-49	-24	-63	-27
제1차금속	-79	-34	-95	-44	-126	-57
금속제품	-90	-32	-119	-57	-164	-76
기계, 정밀기기	-124	-53	-149	-74	-224	-106
전기, 전자	1516	627	2663	1114	3032	1270
수송장비	-278	-118	-301	-138	-370	-167
기타(가구)	-91	-36	-91	-42	-119	-50
전기, 가스, 수도	-15	-6	-30	-15	-15	-6
건설	1212	468	992	374	1433	609
도소매, 음식·숙박	138	59	138	0	414	117
운수, 보관	-184	-78	-322	-156	-322	-156
통신, 방송	-11	-5	-22	-14	0	-5
금융, 보험	0	0	84	18	42	0
부동산, 사업서비스	-68	-29	-205	-116	-137	-87
공공, 교육·보건	0	0	499	141	333	141
문화오락	-40	-17	40	0	40	0
전산업	1116	419	2134	558	2641	903
(숙련+비숙련)	1535		2693		3544	

2) 시나리오 I-B: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율의 변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1% 생산증가의 외생적 충격결과 CGE 모형이 내생적으로 계산한 고용변동률은 <표 5-4>와 같으며, 이를 다시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산업별 고용유발인원은 <표 5-5>와 같다.

<표 5-4> 전자산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단위: %)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030	-0.020	-0.050	-0.060	-0.130	-0.130
광산품	-0.100	-0.090	-0.160	-0.160	-0.500	-0.500
음식료품	-0.020	-0.010	-0.030	-0.040	0.110	0.100
섬유, 가죽	-0.230	-0.210	-0.320	-0.330	-0.510	-0.510
목재·종이, 인쇄	-0.070	-0.060	-0.180	-0.190	-0.300	-0.300
석유, 석탄	-0.140	-0.120	-0.250	-0.260	-0.160	-0.160
화학제품	-0.170	-0.160	-0.320	-0.330	-0.490	-0.490
비금속광물	0.020	0.030	-0.200	-0.210	-0.280	-0.280
제1차금속	-0.200	-0.180	-0.330	-0.340	-0.520	-0.530
금속제품	-0.090	-0.080	-0.240	-0.250	-0.370	-0.370
기계, 정밀기기	-0.190	-0.180	-0.300	-0.310	-0.470	-0.480
전기, 전자	-0.180	-0.160	-0.300	-0.310	-0.450	-0.450
수송장비	-0.170	-0.150	-0.290	-0.300	-0.430	-0.430
기타(가구)	-0.170	-0.150	-0.280	-0.290	-0.440	-0.440
전기, 가스, 수도	-0.120	-0.100	-0.180	-0.190	-0.100	-0.100
건설	0.330	0.330	0.250	0.240	0.440	0.440
도소매, 음식·숙박	0.190	0.200	0.500	0.490	0.730	0.720
운수, 보관	-0.140	-0.120	-0.210	-0.220	-0.230	-0.230
통신, 방송	-0.040	-0.020	-0.010	-0.020	0.040	0.040
금융, 보험	-0.020	0.000	0.040	0.030	0.000	0.00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60	-0.040	-0.080	-0.090	-0.040	-0.050
공공, 교육·보건	-0.010	0.010	0.080	0.070	0.060	0.060
문화오락	0.070	0.090	0.180	0.170	0.230	0.2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1% 생산증가에 따라 전 산업에서 유발된 고용인원 또한 사용한 분석방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정태분석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6,951명 및 2,844명 증가하였으나, 중기 자본축적 분석에서는 각각 4,591명 및 1,591명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장기 동태분석에서는 고용유발인원이 다시 크게 격감하여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1,900명 및 1,325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단기보다 중기에서, 그리고 중기보다 장기에서 고용유발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31	-9	-51	-26	-133	-56
광산품	-12	-5	-20	-8	-61	-26
음식료품	-30	-6	-46	-26	168	65
섬유, 가죽	-608	-236	-846	-370	-1348	-573
목재·종이, 인쇄	-103	-38	-266	-119	-443	-188
석유, 석탄	-14	-5	-25	-11	-16	-7
화학제품	-428	-171	-806	-353	-1234	-524
비금속광물	14	9	-139	-62	-195	-83
제1차금속	-158	-60	-260	-114	-410	-178
금속제품	-134	-51	-358	-158	-552	-235
기계, 정밀기기	-472	-190	-746	-327	-1168	-507
전기, 전자	-737	-278	-1229	-540	-1844	-783
수송장비	-394	-147	-671	-295	-995	-423
기타(가구)	-119	-44	-196	-86	-307	-131
전기, 가스, 수도	-60	-21	-91	-41	-50	-21
건설	3637	1545	2755	1123	4849	2060
도소매, 음식·숙박	2622	1172	6899	2872	10073	4220
운수, 보관	-644	-235	-967	-430	-1059	-450
통신, 방송	-43	-9	-11	-9	43	18
금융, 보험	-84	0	167	53	0	0
부동산, 사업서비스	-410	-116	-547	-261	-273	-145
공공, 교육·보건	-166	71	1331	495	999	424
문화오락	277	151	711	285	909	386
전산업	1900	1325	4591	1591	6951	2844
(숙련+비숙련)	3226		6183		9795	

3) 시나리오 I-A, I-B의 시사점

위의 분석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생산증

가에 따른 고용창출인원이 단기에서는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에 걸친 창출효과는 단기효과의 33~43%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기 분석의 고용창출 인원은 단기효과의 80% (전기전자) 또는 6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계수가 높은 산업에서의 FDI 증가(생산증가)가 낮은 산업에서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용창출만에 집착하여 FDI의 파급효과를 평가할 경우 CGE 정량분석 결과가 좋은 일자리(decent job)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를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기 목표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겠다. 즉, 국민경제의 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언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실험 결과 II: 자본증가 효과

GTAP CGE 모형은 산업구분 없이 전체 자본스톡이 공급되고, 각 산업별 수요에 대응하여 자본스톡이 산업별로 배분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자본스톡이 0.1% 증가하는 시나리오 II를 가정하기로 한다.

시나리오 II 또한 GTAP 동학모형의 방정식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하기로 한다. 첫 번째 세부 시나리오는 동학모형에서 유일한 금융자산으로 정의되는 자본스톡 가치 (지역기업 자본의 소유권 가치, WQ_FIRM)의 외생적 변화(swq_f)를 0.1% 증가로 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시나리오는 통상적인 자본스톡가치 (VK, 경상가치)의 외생적 변화(sqk)를 0.1% 로 가정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의 세부 시나리오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자본이 0.1%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의 세부 시나리오는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스톡이 0.1%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세부 시나리오의 충격에 따라 GTAP 동학모형이 계산한 산업별 고용변동율은 <표 5-6>과 같으며, 이를 다시 산업별 고용증가인원으로 환



산한 것이 <표 5-7>과 같다.

자산측면에서 자본스톡을 증가시킨 분석에서는 고용이 미세하게 증가하나, 생산측면에서 포착한 자본스톡을 증가시킨 분석에서는 도리어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증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자본사용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일부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자산 가치개념으로서의 자본의 증가는, 즉 자산가치의 증가는 사업성의 증가를 의미하여 자본의 노동대체를 상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6> 자본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

	자산가치 0.1% 증가		자본스톡 0.1% 증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000	0.000	0.000	0.000
광산품	0.000	0.000	0.000	0.010
음식료품	0.000	0.000	-0.020	-0.010
섬유, 가죽	0.010	0.010	0.010	0.010
목재·종이, 인쇄	0.000	0.010	0.000	0.010
석유, 석탄	0.000	0.010	-0.010	-0.010
화학제품	0.010	0.010	0.000	0.010
비금속광물	0.000	0.000	-0.010	0.000
제차금속	0.010	0.010	0.000	0.010
금속제품	0.010	0.010	0.000	0.010
기계, 정밀기기	0.010	0.010	0.010	0.010
전기, 전자	0.010	0.010	0.010	0.010
수송장비	0.010	0.010	0.000	0.010
기타(가구)	0.010	0.010	0.000	0.010
전기, 가스, 수도	0.000	0.000	-0.010	0.000
건설	0.000	0.000	-0.020	-0.010
도소매, 음식·숙박	0.000	0.000	-0.010	-0.010
운수, 보관	0.000	0.000	-0.010	0.000
통신, 방송	0.000	0.000	-0.010	0.000
금융, 보험	0.000	0.000	-0.010	0.00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00	0.000	-0.010	0.000
공공, 교육·보건	-0.010	-0.010	-0.010	0.000
문화오락	0.000	0.000	-0.010	0.000

주: 1)동학모형 추정결과임

〈표 5-7〉 자본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자산소유권가치 0.1% 증가		자본스톡가치 0.1% 증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	0	0	0
광산품	0	0	0	1
음식료품	0	0	-30	-6
섬유, 가죽	26	11	26	11
목재·종이, 인쇄	0	6	0	6
석유, 석탄	0	0	-1	0
화학제품	25	11	0	11
비금속광물	0	0	-7	0
제1차금속	8	3	0	3
금속제품	15	6	0	6
기계, 정밀기기	25	11	25	11
전기, 전자	41	17	41	17
수송장비	23	10	0	10
기타(가구)	7	3	0	3
전기, 가스, 수도	0	0	-5	0
건설	0	0	-220	-47
도소매, 음식·숙박	0	0	-138	-59
운수, 보관	0	0	-46	0
통신, 방송	0	0	-11	0
금융, 보험	0	0	-42	0
부동산, 사업서비스	0	0	-68	0
공공, 교육·보건	-166	-71	-166	0
문화오락	0	0	-40	0
전산업	4	8	-683	-33
(숙련+비숙련)	12		-716	

주: 1) 동태모형 추정결과임

다. 정책실험 결과 III: 생산성증가 효과

시나리오 3은 FDI의 동태적 효과의 하나인 생산성 증가의 고용유발효과이다. 전자산업 1% 생산성 증가의 외생적 충격을 CGE 모형으로 계산한 고용증가율의 변화가 〈표 5-8〉이다.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동태분석에서는 각각 1.05% 및 1.02%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 증가의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증가 및 사업기회의 확대에 따라 고용을 확대시킴을 시사한다.



〈표 5-8〉 전자산업 1%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단위: %)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120	-0.120	0.040	0.040	0.050	0.060
광산품	-0.160	-0.160	0.080	0.080	0.150	0.150
음식료품	-0.060	-0.060	0.030	0.030	0.000	0.010
섬유, 가죽	-0.510	-0.490	0.130	0.140	0.160	0.170
목재·종이, 인쇄	-0.180	-0.170	0.070	0.080	0.100	0.100
석유, 석탄	-0.160	-0.160	0.070	0.080	0.050	0.050
화학제품	-0.290	-0.280	0.110	0.120	0.140	0.150
비금속광물	0.000	0.000	0.070	0.080	0.080	0.090
제1차금속	-0.340	-0.330	0.110	0.120	0.150	0.150
금속제품	-0.190	-0.180	0.080	0.090	0.100	0.110
기계, 정밀기기	-0.200	-0.190	0.060	0.070	0.080	0.090
전기, 전자	1.050	1.020	-0.670	-0.660	-0.740	-0.730
수송장비	-0.420	-0.410	0.130	0.140	0.150	0.160
기타(가구)	-0.430	-0.420	0.120	0.130	0.150	0.160
전기, 가스, 수도	-0.130	-0.120	0.040	0.050	0.020	0.030
건설	0.420	0.400	-0.070	-0.060	-0.110	-0.100
도소매, 음식·숙박	0.000	0.000	-0.020	-0.010	-0.030	-0.020
운수, 보관	-0.160	-0.150	0.070	0.080	0.060	0.070
통신, 방송	-0.060	-0.060	0.010	0.020	0.000	0.010
금융, 보험	-0.010	-0.010	-0.020	-0.010	-0.010	0.00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70	-0.060	0.020	0.030	0.020	0.030
공공, 교육·보건	0.020	0.020	-0.030	-0.020	-0.020	-0.010
문화오락	-0.020	-0.020	-0.010	0.000	-0.010	0.000

〈표 5-8〉의 고용증가율을 산업연관표의 고용자와 연계하여 계산한 전자 산업에서의 1% 생산성 증가에 따른 산업별 고용유발인원은 〈표 5-9〉와 같다.

전 산업에서의 고용유발인원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단기 정태모형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2,678명 및 789명 감소하고 있으며, 중기 자본 축적모형에서는 각각 2,309명 및 633명 감소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동태분석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2,882명 및 1,202명 증가하는 것으로 반전되고 있다. 결국 전자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는 중·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게 됨을 시사한다.

〈표 5-9〉 전자산업 1%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123	-52	41	17	51	26
광산품	-20	-8	10	4	18	8
음식료품	-91	-39	46	19	0	6
섬유, 가죽	-1348	-550	344	157	423	191
목재·종이, 인쇄	-266	-107	103	50	148	63
석유, 석탄	-16	-7	7	3	5	2
화학제품	-730	-300	277	128	353	160
비금속광물	0	0	49	24	56	27
제1차금속	-268	-111	87	40	118	50
금속제품	-284	-114	119	57	149	70
기계, 정밀기기	-497	-201	149	74	199	95
전기, 전자	4302	1775	-2745	-1149	-3032	-1270
수송장비	-972	-403	301	138	347	157
기타(가구)	-300	-125	84	39	105	47
전기, 가스, 수도	-65	-26	20	11	10	6
건설	4629	1872	-771	-281	-1212	-468
도소매, 음식·숙박	0	0	-276	-59	-414	-117
운수, 보관	-736	-293	322	156	276	137
통신, 방송	-65	-28	11	9	0	5
금융, 보험	-42	-18	-84	-18	-42	0
부동산, 사업서비스	-479	-174	137	87	137	87
공공, 교육·보건	333	141	-499	-141	-333	-71
문화오락	-79	-34	-40	0	-40	0
전자업	2882	1202	-2309	-633	-2678	-789
(숙련+비숙련)	4084		-2942		-3466	

5. FDI 증가의 고용영향 전망

이번 절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한 가정 하에서 모의실험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 IV)는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 등 4대 FDI 유입 산업 각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1% 증가하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 V)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10% 금액만큼 생산이 증가할 때의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효과를 전망해보는 것이다.



본 절에서도 역시 FDI가 산출증가 경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중기 자본축적 분석 및 장기 동태분석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본축적 경로의 고용창출을 반영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본 절에서의 FDI 영향분석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성을 갖는다. 보다 중요한 생산성 증가 경로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결국 생산증가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에서의 고용영향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를 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경로 효과를 CGE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FDI 증가에 따른 산업별 생산성 증가를 외생적 패러미터로 가정해야 할 것이다. 자의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인용할만한 이론적 실증연구 결과가 있어야 하나, 아직 축적된 연구결과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증가 효과를 무시하기로 하고 FDI의 고용영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 제시한 FDI의 고용효과는 생산성 증가 경로를 무시한 만큼 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 4대 FDI 산업에서의 FDI 1% 증가의 고용영향

1) 4대 FDI산업 1% FDI 증가 시나리오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 등 4개 산업에서의 FDI 유입비중은 2004~2007년 기간 중 각각 27.0%, 14.6%, 13.4% 및 12.6%로 총 70%에 육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4대 FDI 유입산업에서 FDI가 1% 증가할 때의 고용영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역사적 장기 경제성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질자본수익률(real rate of return to capital; r)이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일정하며), 자본소득의 배분율($= r \frac{K}{Y}$) 또한 대체적으로 고정된 값을 가진다는 것이 유

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다. 즉 장기적 추세적으로 생산 및 자본(FDI)은 같은 성장률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장기추세를 반영하여 주요산업에서의 FDI 증가의 고용효과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2) 정책실험 결과

앞에서와같이 CGE 모형 내에서 계산한 시나리오 IV(4대산업 FDI 1% 증가)에 따른 고용변동률은 <표 5-10>과 같으며, 이를 다시 산업연관표의 고용자와 연계하여 계산한 산업별 고용유발인원은 <표 5-11>과 같다.

<표 5-10> 4대 산업 FDI 1% 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단위: %)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080	-0.070	-0.140	-0.170	-0.630	-0.680
광산품	-0.090	-0.090	-0.240	-0.270	-1.810	-1.850
음식료품	-0.180	-0.150	-0.160	-0.210	0.130	0.020
섬유, 가죽	-0.300	-0.300	-0.640	-0.700	-2.000	-2.110
목재·종이, 인쇄	-0.080	-0.070	-0.340	-0.400	-1.120	-1.230
석유, 석탄	-0.270	-0.250	-0.480	-0.540	-0.580	-0.690
화학제품	-0.210	-0.210	-0.600	-0.670	-1.840	-1.960
비금속광물	0.070	0.070	-0.350	-0.410	-0.950	-1.060
제1차금속	-0.240	-0.240	-0.630	-0.690	-1.960	-2.070
금속제품	-0.100	-0.100	-0.450	-0.510	-1.390	-1.500
기계, 정밀기기	-0.210	-0.200	-0.540	-0.610	-1.680	-1.790
전기, 전자	0.040	0.060	0.200	0.140	0.710	0.590
수송장비	-0.240	-0.230	-0.600	-0.660	-1.740	-1.850
기타(가구)	-0.240	-0.240	-0.590	-0.650	-1.810	-1.930
전기, 가스, 수도	-0.230	-0.210	-0.350	-0.410	-0.360	-0.470
건설	0.490	0.510	0.550	0.480	1.910	1.790
도소매, 음식숙박	0.000	0.020	0.270	0.200	0.740	0.610
운수, 보관	-0.240	-0.220	-0.390	-0.460	-0.790	-0.920
통신, 방송	-0.120	-0.100	-0.030	-0.100	0.130	0.020
금융, 보험	0.230	0.250	0.470	0.410	0.820	0.71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20	0.000	0.090	0.030	0.670	0.550
공공, 교육·보건	-0.070	-0.050	0.170	0.110	0.280	0.160
문화오락	0.000	0.020	0.200	0.140	0.410	0.300

전 산업에서의 고용유발인원을 살펴보면 단기 정태분석에서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이 각각 18,732명 및 3,700명이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 자본축적모형에서는 비숙련노동 및 숙련노동이 각각 6,079명 및 296명 증가로 고용유발인원이 단기의 결과에 비해 1/3 수준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다시 장기 동태분석에서는 각각 505명 및 833명 증가로 중기수준의 1/4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단기보다 중기에서 중기보다 장기에서 고용유발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 등 가격이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보험업에서의 고용창출이 특히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표 5-11〉 4대산업 FDI 1%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82	-30	-143	-74	-645	-295
광산품	-11	-5	-29	-14	-221	-96
음식료품	-274	-97	-244	-136	198	13
섬유, 가죽	-793	-337	-1691	-786	-5286	-2369
목재·종이, 인쇄	-118	-44	-502	-251	-1655	-772
석유, 석탄	-26	-10	-47	-22	-57	-29
화학제품	-529	-225	-1511	-717	-4634	-2097
비금속광물	49	21	-244	-121	-663	-314
제1차금속	-189	-80	-497	-231	-1546	-694
금속제품	-149	-63	-672	-323	-2074	-951
기계, 정밀기기	-522	-211	-1342	-644	-4176	-1890
전기, 전자	164	104	819	244	2909	1027
수송장비	-556	-226	-1389	-649	-4028	-1819
기타(가구)	-168	-71	-412	-193	-1264	-572
전기, 가스, 수도	-116	-45	-176	-88	-181	-101
건설	5400	2387	6061	2247	21049	8379
도소매, 음식·숙박	0	117	3726	1172	10211	3575
운수, 보관	-1105	-430	-1795	-899	-3636	-1799
통신, 방송	-130	-46	-32	-46	141	9
금융, 보험	962	444	1966	728	3429	1261
부동산, 사업서비스	-137	0	615	87	4580	1597
공공, 교육·보건	-1165	-353	2829	778	4660	1131
문화오락	0	34	790	235	1620	504
전산업	505	833	6079	296	18732	3700
(숙련+비숙련)	1338		6375		22432	

나. FDI 10% 산출증가의 고용영향

1) FDI 10% 산출증가 시나리오의 구성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110억 달러 정도이므로 FDI 10% 증가는 약 11억 달러 증가함을 의미한다. 2004~2007년 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연평균 115억 달러였으며, 산업연관표가 발표되었던 2000년 및 2003년의 평균 FDI 유입액은 109억 달러로 역시 유사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 등 4개 산업에서의 FDI 유입비중은 2004~2007년 기간 중 각각 27.0%, 14.6%, 13.4% 및 12.6%로 총 70%에 육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DI 10% 증가액 (11억 달러)만큼의 산출증가액이 전기·전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 등 4대 주요산업에 25%(약 2억 7천 달러, 약 3천 3백억 원)씩 배분된다고 가정했을 때(시나리오 V)의 고용효과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산업별 산출증가액을 2003년도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산출액 대비 증가율로 환산하면 전기·전자에서의 생산증가는 약 0.209%이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생산증가는 0.251%이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보험업 및 사업서비스·부동산에서의 생산증가율은 각각 0.444% 및 0.251%이다.

FDI 연간유입액의 총산출 비중이 약 1.2% 정도이므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액과 비교) FDI 10% 증가는 총산출이 약 0.12% 증가함을 의미한다.

2) 정책실험 결과

시나리오 V(FDI 10%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동률은 <표 5-12>와 같으며, 이를 다시 산업연관표의 고용자와 연계하여 계산한 산업별 고용유발인원은 <표 5-13>과 같다.

전 산업에서의 고용유발인원을 살펴보면, 정태모형에서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이 각각 4,425명 및 548명 증가하여 총 4,974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 자본축적 분석에서는 비숙련노동이 1,054명 증가하지만, 숙련노동이 313명 감소하여 총 고용증가가 741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단기 결과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 동태분석 결과는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증가가 각각 239명 및 37명으로 자본축적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기보다 중기에서, 중기보다 장기에서 고용유발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 등 가격이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보험업에서의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표 5-12〉 FDI 10%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변화

(단위: %)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0.060	-0.060	-0.040	-0.050	-0.160	-0.170
광산품	-0.090	-0.090	-0.070	-0.080	-0.450	-0.460
음식료품	-0.030	-0.030	-0.040	-0.060	0.030	0.000
섬유, 가죽	-0.210	-0.210	-0.180	-0.200	-0.500	-0.540
목재·종이, 인쇄	-0.080	-0.080	-0.100	-0.120	-0.290	-0.320
석유, 석탄	-0.090	-0.090	-0.130	-0.150	-0.150	-0.190
화학제품	-0.150	-0.150	-0.170	-0.190	-0.460	-0.500
비금속광물	0.000	0.000	-0.100	-0.120	-0.240	-0.270
제1차금속	-0.170	-0.170	-0.180	-0.200	-0.500	-0.530
금속제품	-0.090	-0.090	-0.130	-0.150	-0.360	-0.390
기계, 정밀기기	-0.160	-0.160	-0.160	-0.180	-0.430	-0.470
전기, 전자	0.000	0.000	0.010	-0.010	0.140	0.100
수송장비	-0.160	-0.160	-0.160	-0.180	-0.430	-0.470
기타(가구)	-0.180	-0.180	-0.170	-0.190	-0.460	-0.500
전기, 가스, 수도	-0.080	-0.080	-0.100	-0.120	-0.100	-0.130
건설	0.210	0.200	0.130	0.100	0.460	0.420
도소매, 음식·숙박	0.010	0.010	0.060	0.040	0.180	0.140
운수, 보관	-0.090	-0.090	-0.110	-0.130	-0.200	-0.240
통신, 방송	-0.030	-0.030	-0.010	-0.030	0.030	-0.010
금융, 보험	0.170	0.160	0.270	0.250	0.360	0.330
부동산, 사업서비스	-0.020	-0.020	-0.030	-0.050	0.110	0.080
공공, 교육·보건	0.000	0.000	0.040	0.020	0.070	0.030
문화오락	0.010	0.010	0.050	0.030	0.100	0.070

〈표 5-13〉 FDI 10%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동학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농림수산	-61	-26	-41	-22	-164	-74
광산품	-11	-5	-9	-4	-55	-24
음식료품	-46	-19	-61	-39	46	0
섬유, 가죽	-555	-236	-476	-225	-1321	-606
목재·종이, 인쇄	-118	-50	-148	-75	-429	-201
석유, 석탄	-9	-4	-13	-6	-15	-8
화학제품	-378	-160	-428	-203	-1158	-535
비금속광물	0	0	-70	-36	-167	-80
제1차금속	-134	-57	-142	-67	-394	-178
금속제품	-134	-57	-194	-95	-537	-247
기계, 정밀기기	-398	-169	-398	-190	-1069	-496
전기, 전자	0	0	41	-17	574	174
수송장비	-370	-157	-370	-177	-995	-462
기타(가구)	-126	-53	-119	-56	-321	-148
전기, 가스, 수도	-40	-17	-50	-26	-50	-28
건설	2314	936	1433	468	5069	1966
도소매, 음식숙박	138	59	828	234	2484	821
운수, 보관	-414	-176	-506	-254	-921	-469
통신, 방송	-32	-14	-11	-14	32	-5
금융, 보험	711	284	1129	444	1505	586
부동산, 사업서비스	-137	-58	-205	-145	752	232
공공, 교육·보건	0	0	666	141	1165	212
문화·오락	40	17	198	50	395	118
전산업	239	37	1054	-313	4425	548
(숙련+비숙련)	276		741		4974	

6. 요약 및 시사점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에 유입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자본스톡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CGE 모형은 이와 같은 경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일반균형체계 내에서 내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별된 각 경로에 주어져야 하는 외생적 충격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 생산증가, 중기적 자본증가, 장기적



생산성 증가에 대한 패러미터에 대한 구체적 가정(몇 % 증가)을 외부 학술 연구에서 인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 경로, 또는 노동경제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FDI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부분 균형적·이론적 접근의 연구결과의 축적이 병행될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및 5절에서의 FDI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정책실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단기 정태분석으로 파악한 고용유발효과를 중장기 고용유발효과와 비교할 때, 단기적 분석 결과가 고용창출을 상당 수준 과대평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산된 고용유발인원에 대한 평가이다. 일단 CGE 모형에서 제시하는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치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시나리오가 초래하는 변화의 방향 및 개략적 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보다는 고용변화에 대한 질적 평가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에서 단기적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과 장기 비교우위 산업에서 작은 규모지만 좋은 일자리(decent job)을 창출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성진·서상원(2005),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 강성진·손상학(2007),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행.
3. 남광희·윤성훈(2005),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7), 한미FTA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KIEP.
5.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실태 조사 보도 자료.
6. 이창수·송백훈(2008), 「러시아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의 WTO 가입과 EU와의 FTA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 12(1), 251~286.
7. 이창수·신상협(2008), 「EU 확대가 EU 권역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EU학연구』, 13(1), pp.5~40.
8. 이창수·김홍중(2008), 「한-EU FTA 서비스 자유화의 경제적 영향평가」, 『국제통상연구』, 13(2), pp.65~94.
9. 정종인·박장호(2007.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10. 조용수(2006), 외국인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11. 홍재범(2008),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금융경제연구 제320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http://www.keis.or.kr/>).
13. Aitken, Brian J. and Harrison, Ann E., "Do Domestic Firms Benefit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Venezuela,"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1999, pp.605~618.
14. Ahuja, V. and D. Filmer (1995), "Educational Attai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New Estimates and Projections Disaggregated by Gende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489.
15. Baldwin, Richard E., J. Francois and Richard Portes (1997), "The Costs and benefits of Eastern Enlargement: The Impact on the EU and Central Europe," *Economic Policy*, 24, pp.127~176.
16. CPB(1999), "WorldScan: The Core Version,"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17. Dee, Philippa, "A Compendium of Barriers to Services Trade", *Asia Pacific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5.
18. Dee, Philippa, Kevin Hanslow and Tien Phamduc, "Measuring the Costs of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in Takatoshi Ito and Anne Krueger(eds), *Trade in Servi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19. Davis and Haltiwanger(1992), "Gross Job Creation, Gross Job Destruction, and Employment Reallo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7, No.3, August, pp.819~863.
20. Grieco, Joseph M. "Foreign Investment and Development: Theories and Evidence," in Theodore H. Moran, ed., *Investing in Development: New Roles for Private Capita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986, pp.35~60.

21. Ianchovichina, E. and R. McDougall, (2001), "Theoretical Structure of Dynamic GTAP," GTAP Technical Paper, No.17.
22. Findlay, Christopher and Tony Warren (eds.), Impediments to Trade in Services: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London: Routeledge, 2000.
23. Francois, Joseph and Brad McDonald (1996),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7.
24. Hertel, Thomas. W.(ed.)(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Rugman, Alan M.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 Assessment of Internalization Theory,"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1986, 38(2), pp.101~18.
26. Walmsley, Terrie L. (2006), "A Baseline Scenario for the Dynamic GTAP Model (For the GTAP 6 Data Base)," GTAP.
27. _____, Betina Dimaranan and Robert A. McDougall (2000), "A Base Case Scenario for the Dynamic GTAP Model".
28. World Bank(2005), Global Economic perspective 2005, World Bank, Washington, DC.
29. _____(2008), Global Economic perspective 2008, World Bank, Washington, DC.

◆ 執筆陣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인재(인천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창수(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 | | |
|-----------|--|
| ▪ 발행연월일 | 2009년 12월 7일 인쇄
2009년 12월 11일 발행 |
| ▪ 발 행 인 | 박 기 성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11501-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782-0141 Fax: (02) 786-1862 |
| ▪ 조판 · 인쇄 | (주)이환디앤비 (02) 2254-4301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82-9